

海清堂

제 2 호
2538년 여름



松廣寺 佛教 專門講院 發行

송광사에 어울리는 컴퓨터

호로로-오 호반새의 낭랑한 목청이 메아리지는 유월, 송광사 학인들의 표정이 어느때 보다도 밝다. 더구나 컴퓨터를 다룰 줄 아는 스님들은 신바람이 나 있다. 며칠 전 상강례 시간에 강주스님께서 어떤 보살이 강원에 컴퓨터를 보시하기로 했다고 하셨을 때, 웬 돈 많은 보살이 복을 짓나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었다. 그런데 그 보살님을 만나 함께 컴퓨터를 구입하고 온 학인스님이 전하는 얘기는 대수롭게 지나칠 수 없는 것이었다. 강주스님이 감사의 뜻으로 그 보살님에게 미안마에서 가져온 탕화를 선물하자고 하셨을 때, 자청해서 전해 드리겠다고 했던 것도 뭔가 그럴듯한 사연이 있을 것 같은 예감 때문이었다. 약속한 장소에 좀 일찍 도착해서 지금까지 전해 들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전원일기의 어머니 같은 이미지를 떠올리고 있다가 '제가 진여성 보살입니다' 하며 나타난 여인을 보고 조금은 당황했다. 자신감 있는 말씨에 당당한 태도에서 캐리어 우먼같은 인상을 받았는데, 오십 명이 넘는 광주불교합창단의 회장을 맡고 있다고 했다.

간단하게 인사를 나누고 컴퓨터를 보시하게 된 인연을 들려달라고 했다. 이십여 년째 다니는 광주 원효사에 요즘은 매일 가서 살다시피하고 있는데, 주지스님에게서 송광사 강원에서 컴퓨터가 필요해 화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단다. 마침 친정어머니가 옷 한 벌 해 입으라고 주신 돈이 있어 그동안 짬짬이 모아 놓은 돈과 합치니 이백만원이 좀 넘어서 주지스님께 보시할 뜻을 비쳤더니 잘됐다며 강주 스님을 소개시켜 주셨단다.

컴퓨터를 잘 아는 학인스님과 매장에 가서 요모조모 알아보니 그 돈으로는 컴퓨터 본체 밖에 살 수 없었다. 같이 간 스님이 모니터는 나중에 강원 기금으로 사도 된다고 했지만, 차를 사주는데 바퀴는 빼고 사주는 것 같아 마음이 찝찝해서 직장에 다니는 둘째 딸에게 전화를 했더니, 보시할 기회가 생겨 잘됐다며 당장은 가진 돈이 없으니까 자기 신용카드를 사용하라 하더라. 진여성 보살님은 이런 일로 칭찬을 듣고 선물까지 받게되어 미안할 뿐이라며, 모녀 삼대가 뜻을 모아 보시할 기회를 주신 스님들께 오히려 고맙다고 했다.

큰딸이 수녀가 되겠다고 해서 속을 썩였는데, 올들어 절에도 함께 잘 나가고 스님 말씀도 잘 들어 그렇게 이빠 보일 수가 없단다. 큰딸이 특수유아교육을 전공하러 곧 미국에 가는데, 공부 마치고 돌아오면 모녀가 함께 광주에 불교식 유아학교를 세워 부처님 품안에서 꿈나무들을 키우는 것이 소원이라고 했다. 고등학교 일학년인 아들의 장래희망이 스님이라며 웃는 진여성 보살님의 어머니는 춤꾼 공옥진 보살님이다.



海清堂

제 2 호 / 2538년 여름

차 례

송광사에 어울리는 컴퓨터

특별기고

- 24 / 강원은 수행도량이고
 확인은 구도하는 수행자다 지운

시

- 2 / 대관령 사람 3 천호
 3 / 弄說 승국
 23 / 枕溪聽石 忍庵

특집 편지

- 4 / 고향길에서 도선
 6 / 휴천 스님에게 도산
 8 / 바람직한 스님상 도운

신문

- 14 / 수행자와 어머니 하일
 16 / 초발심자의 눈물 보원
 18 / 송광사에서 한 해를 보내고 송원

만행기

- 20 / 만행 7박 8일 원당

일기

- 35 / 4월30일과 5월 8일 회일

강원 소식

- 10 / 화보로 본 강원 소식
 34 / 강원 현판식
 19 / 원고 모집

『해청당』 제 2 호

발행처 : 송광사 불교 전문강원
 발행인 : 효원(입승)
 발행일 : 2538년 6월 30일
 고 문 : 지운
 편 집 : 회일, 보원, 랑림, 도선, 한운
 주 소 : 전남 승주군 송광면 신평리

대관령사람 3

천호(사교반)

침엽수의 균락을 마주보고 있는 대합실의 구석구석은 쓸쓸하다. 대개의 흑한에 대해 그러하듯이 나는 침묵한다. 저들의 숨결도 살담배의 불빛에 매달려 명멸을 거듭하고 있을 뿐이다. 다만 일을 다하고 귀가하는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하나 둘 다가와 매캐한 불을 피우고 돌아서 있다. 사람의 얼굴을 붉게하는 불 아름다운 불이여 붉은 온기는 너와 나의 시린 발목을 사로잡는다. 불꽃을 보라 마른 소루쟁이와 물거리며 마들가리, 거듭거듭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저 불꽃을 보라. 불꽃에는 불꽃으로 지속하려는 우리들의 일치된 의도가 꾸준히 타오르고 있으니 불꽃에는 외로운 생애와 흐린 세상에 대한 유구한 사랑이 붉게 타오르고 있으니. 목숨처럼 쉼불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다. 우리는 아직 살아있고 싶은 것이며 우리는 이 한파의 설원에서 묵묵히 하나가 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폭설에 두절된 도로망. 모든 관련으로부터의 단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것일까. 한낱 분별로부터의 결별은 눈에 덮혀 이렇게 순결하다할 것일까. 털털 멀리서 부터 대관령을 넘어오는 강원운수의 한줄기 불빛은 어둠 속에서 살아오르던 이 아름다운 불빛을 이내 지우고 말 것이지만 붉은 눈빛처럼 한점 한점 불씨는 살아있을 것이다. 인동의 시간이 흐르고 있을뿐 어디에서든 거듭 숨쉬고 있을 것이다. 저렇게 밤하늘로 어지러이 날아오르는 불똥들은 드높은 星座에 끝내 도달하지 못할지라도.

弄說

僧國(사교반)

萬古智不變
 今日煩如此
 尋智卽千遠
 掉煩就一身
 開花如觀音
 鳥鳴猶普賢
 二聖亦不知
 煩惱智慧珠
 一線串萬珠
 掛在吾身上
 到處去遊玩
 去看一場戲
 可笑亦可笑
 不免千萬棒

옛부터 지혜는 변함이 없고
 오늘 번뇌도 이와 같다
 지혜찾은 즉 천리나 멀어지고
 번뇌 버리려하나 이 몸에 있네.
 피어있는 꽃 관음보살이요
 새지저귀는 보현보살일세
 두 성인 역시 모르니
 번뇌와 지혜구슬
 한 줄에 만개를 꿰어
 내 몸에다 걸쳐놓고
 이르는 곳마다 놀음이니
 가서 보자 한마당 연극
 우습고 우습도다
 천만방망이를 면치 못하리

고향길에서

도선(치문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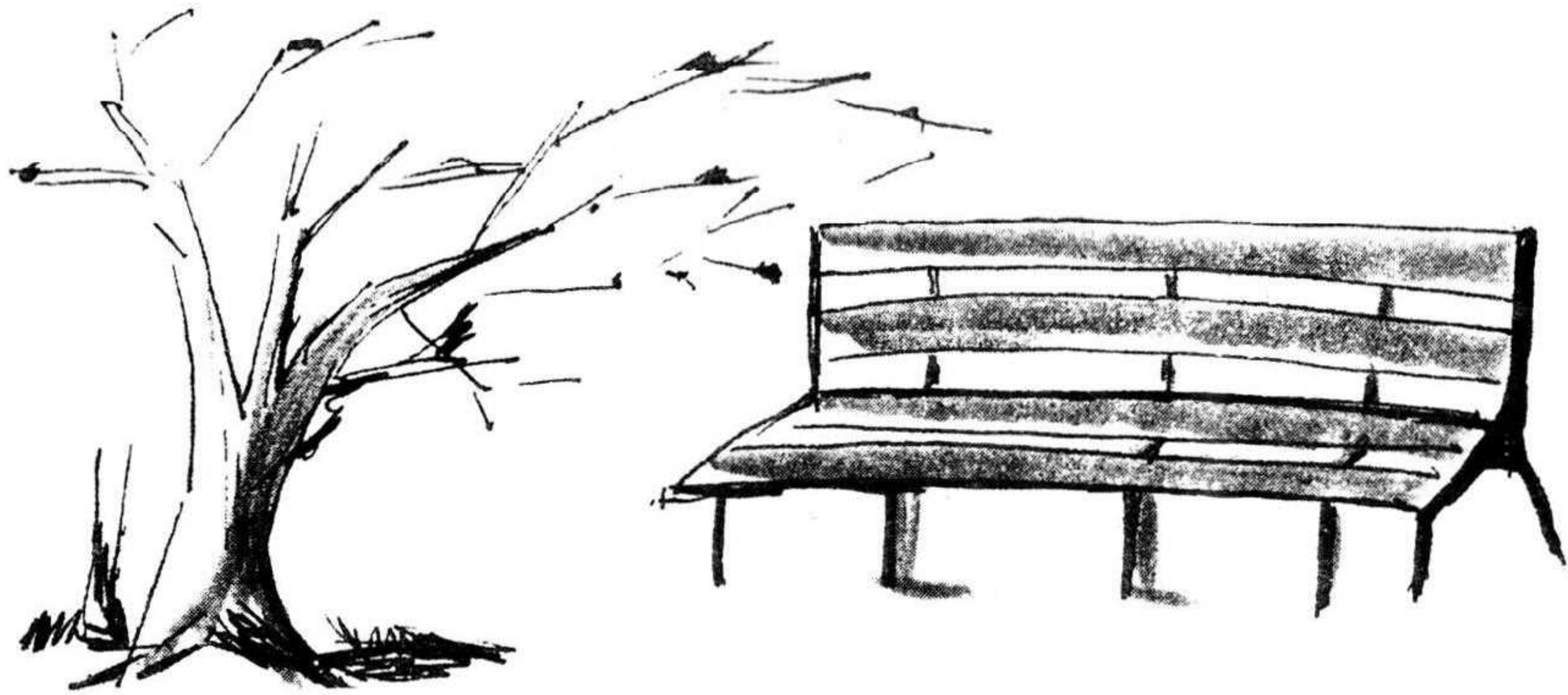
無碍법우님!

조계산의 山色이 나날이 그 푸르름을 더해만 가는 5월입니다. 新綠은 우리의 눈을 씻어주고 우리의 귀를 씻어주며 우리의 때묻은 마음까지 씻어준다고 하지요. 우리들의 마음 구석구석 까지 푸른 빛으로 물들게 하는 5월의 신록을 바라보면서 산에 들어와 솔바람과 계곡의 물소리를 들으며 살아가는 이 인연이 새삼 고마울 뿐입니다. 옅은 안개와 봄비에 젖어있는 조계산의 푸르고 여린 새싹들은 매일같이 山門을 찾아드는 낯선 나그네들로 하여금 능히 俗塵을 털고 청정한 환희심을 불러 일으키기에 부족함이 없을 듯합니다. 대웅전 뜨락을 거닐 때마다 도량과 도량을 감싸는 푸른 숲과 새소리와 흰구름이 모두가 하나인 듯 조화로운데 오직 나만이 허물있어 이 조화로움을 깨뜨리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무애법우님!

강원에서의 하루 일과 중 가장 여유로운 한 때는 점심 공양 후의 시간이 아닌가 합니다. 북치는 연습을 하러 가야겠다는 생각으로 후다닥 공양을 끝나치고 몇몇 예경반 스님들과 함께 버섯밭으로 향합니다. 도량을 끼고 흐르는 계곡물이 밤새 내린 비로 많이 불어났습니다. 버섯밭에 있는 도토리 나무의 푸른 잎새들이 아침 이슬에서 깨어난 듯 햇살에 반짝이고 있습니다.

또딱 또딱 또딱..... 북채를 잡고 도반스님들이 서로 번갈아 가면서 힘껏 두들깁니다. 며칠 전에 종두 소임을 맡고 있는 연해스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도반 중 랑림스님의 솜씨가 으뜸이고 도제, 도은스님은 최고 부지런히 연습하는 스님입니다. 요란한 북소리에 놀란 다람쥐들이 귀를 쫓긋 세우고는 숲속의 평화와 고요를 깨뜨리는 무례한 일당(?)을 향해 두리번거리는 모습도 가끔씩 보입니다. 북채에 매달려 한참 씨름하다보면 어느새 이마에 구슬땀이 송글송글. 바로 이때다 싶어 옷을 훌훌 벗고 차가운 계곡물에 들어가는 모험을 감행합니다. 작년 11월까지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 이곳에서 목욕을 하곤 했는데 지금은 봄이라 그때에 비하면 물이 많이 풀린 듯 합니다. 물속에 몸을 담그고 가만히 있으면 물고기들이 물려와 주변을 맴돌곤 하는데 그중 몇몇은 먹이나 되는 줄 알고 살갓에 입을 맞추어 보기도 합니다. 그 여린 감촉이란... 작년의 그 물고기들인 듯하여 반갑기도 하고 해가 바뀐 사이에 식구도 많이 늘어나 송사리들이 눈에 띄게 많아졌습니다. 내일 계곡에 올때에는 빵조각이라도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맑은 계곡물에 몸을 담그고 있으면 내 일상의 흐리고 탁한 기운들이 물살에 씻기어 나가는 듯 컷가에는 계곡물 소리만이 아득히 흘러갈 뿐입니다.



무애법우님!

나는 이제 고향가는 길에 서 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생을 낳은 땅에서 헤매이며 흘러왔는지... 참 다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옛날 이곳에 발걸음이 잠깐 머문 듯하였으나 아직緣이 익지 않고 善根이 박했음인지 뜻을 이루지 못했다가 다시 조계산문에 들어선 것이 어느덧 한해가 지났습니다. 문을 열면 청산이 보이고 산새소리와 염불소리가 끊기지 않는 좋은 도량에서 여러 훌륭한 수행자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게 되어서 더없이 즐겁고 스님들의 낭랑한 간경소리와 보름이면 한 번씩 높다란 대웅전 위로 환한 보름달을 구경할 수 있어서 좋은 山寺. 나는 이제 갓 국민학교에 입학한 코흘리개 아이처럼 큰방 경상 앞에 앉아서 부처님 가르침과 옛 어른 스님들의 말씀을 배우는 기쁨에 가슴이 설렘니다. 어려운 한자를 읽히느라 머리가 아플 때면 도서관에 가서 동화책을 한 권 꺼내와 계곡에 가서 읽기도 하는 요즘 늘 나의 무거운 업의 무게를 절감하면서도 청정한 도량에 출가하여 불제자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모습에서 뿌듯함을 느낍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힘겨운 산업현장에서 굵은 땀방울을 흘리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을 여러 법우님들과 연로하신 부모님을 생각하면 산에서 마냥 한가로이 지내거나 게으름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계곡물에서 며칠 목욕한 탓인지 요즘 심한 기침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온화하고 겸손한 보살같은 어느 스님의 도움으로 지금 한약을 지어먹고 있습니다. '봄미나리 살찐 맛을 님에게 드리고자 님이야 무엇이 없으랴만 내뭇 잊어 하노라.' 작고 보잘것 없는 봄미나리 한쪽이라도 님에게 드리고자 했던 우리네 조상들의 넉넉하고 따뜻한 마음이 바로 그 스님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무애법우님!

자연의 무한한 은혜와 혜택이 가득한 봄날입니다. 한순간도 조용함이 없이 늘 파도치고 일렁이는 우리들의 생활이지만 매일 한 발자욱씩 만큼이라도 부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이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언젠가는 다툼이 없고 헤어짐이 없는 너와 내가 하나인 그러한 마을의 고향땅에 다다르지 않겠습니까? 조계산의 푸르고 맑은 기운이 멀리 도심지까지 전해져서 법우님의 가슴에 한줄기 시원한 산들바람으로 와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淨土는 河海와 같이 넓어 모든 것을 포용한다고 합니다. 번다한 도심의 삶이지만 늘 바다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법우님되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휴천스님에게

도산(치문반)

휴천스님에게

수행자에겐 결망 하나와 누더기 한 벌이면 하늘 아래 내집 아닌 곳이 없다고 하지만 전 아직 어려서인지 스님께서 정서가 다른 타국에서 힘들게 사시지나 않나 걱정됩니다. 스님 잘 지내시죠? 전 이제 강원에 들어온지 한달이 조금 넘었습니다. 익숙치 않은 대중생활이라 이런 저런 힘든 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속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살다보니 저의 모나거나 틀린 부분이 하나 둘 짚여 나가고 고쳐나가기 때문이죠.

처음 발심할 때의 마음이 변치 않더라도, 처음에 꿈꾸었던 이상적인 수행상들은 조금씩 현실적인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야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제가 생각했던 이상적인 상들이 옳다고 고집했었기에 제게 돌아왔던 혼란과 아픔은 안정과 성숙으로 바뀌었습니다.

휴천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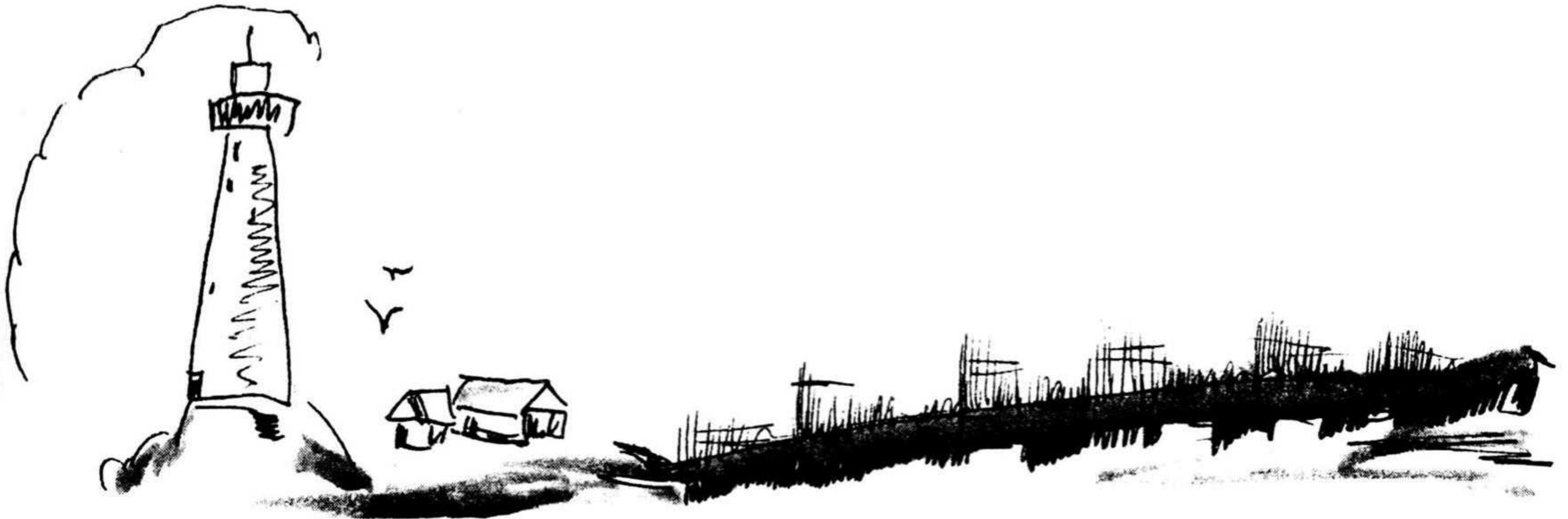
지금 제 상황은 발심의 뜻을 잃고 현실과 타협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현실에 뿌리내린 연꽃이고자 합니다. 이렇게 지난 일을 회상하고자 하노라면 전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지지만 그 당시엔 얼마나 혼란스럽던지, 그리고 그 아픔이 성숙으로 바뀌기까지 왜 그리 힘들어했던지. 사람의 삶에는 이처럼 고락의 산들이

있나봅니다. 고의 정상을 지나면 이렇게 락의 내리막길이 있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보왕삼매론에선 “세상살이에 곤란없기를 바라지 말라. 세상살이에 곤란이 없으면 제 잘난 체하는 마음과 사치한 마음이 일어난다.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기를 「근심과 곤란으로써 세상을 살아가라」 하셨느니라.”라고 말씀하셨나 봅니다.

처음 강원에 들어올 때 전 꿈에 차있었습니다. 책이나 영화에서 본 성자나 수행인들의 모습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제 앞에 나타난 수행인의 모습이란, 아! 실망 ‘어쩔 저리 세속적이고 수행인답지 못한가?’ 제 자신의 모습을 바로 보지 못하고 머리 속에 그린 수행인의 상과 현실을 비교하니 실망과 분노가 절 흔들 수 밖에 없네요.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도산아! 꿈을 깨고 현실을 바탕으로 스스로 힘으로 이상을 향해 나가라. 완전한 수행장이 있기를 바라지 말고 지금 이곳을 완전한 수행장이 되도록 해라. 이곳보다 나은 곳은 없다. 모든 것이 마음이기예”라고 그리고 “아약향도산 도산자최절, 아약향화탕 화탕자소멸, 아약향지옥 지옥자고갈, 아약향아귀 아귀자포만, 아약향수라 악심자조복 아약향축생 자득대지혜”가 되도록 할겁니다. 저의 완벽을 추구하는 성향은 스님께 편지하는 시기를 이렇게 늦추었습니다.

처음 스님께 주소를 받았을 때에는 강원



들어오자마자 소식을 전하여 자주 연락이 되도록 할까했으나, 사람의 일이란 생각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막상 강원에 들어오니 강원 생활에 조금 적응이 되면 연락드려야지, 그러다 조금 지나선 수행 방법을 찾아서 마음이 안정되면 자신있게 연락드려야지 하던 것이 어느새 한 달이 넘고 말았습니다. 역시 사람이란 완벽을 갖춘 후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완벽을 갖추기 위한 생활을 해야한다는 것을 다시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난 일을 회상하다보면 변해가고 있는 제 자신을 봅니다. 처음에 출가 결심했을 때는 정말 힘이 넘쳤습니다. 20년 동안 어둠 속을 헤매다가 광명을 만났으니 어찌 기쁘지 않았겠습니까. 이 길이 제 삶의 유일한 희망임을 확신했을 때, 이 길이 마냥 행복의 길만로 생각되었습니다. 그 당시엔 작은 진척에도 큰 성과를 얻은 것처럼 여겨졌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서야 이 길이 마냥 기쁨의 길만은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뿐만아니라 세속의 삶보다 정신적으로 더 힘들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가끔 힘들어 자신감을 잃어버릴 때는 '그냥 세속에서 잔 재미나 보며 살까?' 하는 어리석고 헛된 망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럴 때면 '언젠가는 또 다시 걸어야할 길인데 여기서 흔들리다니, 이 길만이 살길이고 또 유일하게 가치있는 길이다'라고 새롭게 다짐하곤 합

니다. 교육원에서 스님께서 그려셨죠. "도산 행자님은 전생에 스님이었던것 같다"고요. 저도 요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 전생에 참선수행자 였는데 죽음에 이르러서도 깨닫지 못했기에 서원을 했죠. "제가 내생에 태어난다면 한순간이라도 수행치않고 세상일에 몰든다면 망상으로 스스로를 고통에 빠지게 하소서."라고요. 이 서원이 이루어져 전 어떤 세상 일에 관련된, 즉 참 나를 찾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일에는 크게 기쁘지 않습니다. 항상 한구석에는 허전함이 자리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수행의 기쁨, 안정의 쾌감을 어느정도 느끼기에 한순간도 게으르지않고 수행할 것입니다. 가끔 스님께서선 지금 어떻게 지내실까하고 생각해봐도 영 감이 잡히지않습니다. 호주를 잘모르니까요. 그러니 스님께서 빨리 제게 스님 소식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둘째치고 건강은 어떠시고 수행은 잘되십니까? 지금은 스님에 비해 제가 많이 뒤쳐지지만 열심히 수행해서 그 차이를 극복 할겁니다. 그래서 서로의 수행에 도움이 되는 훌륭한 도반이 되어야겠죠. 스님 저도 잘 살고 있습니다. 스님도 잘 사십시요. 모든 생명에 대한 자비와 굴하지 않는 정진심을 항상 지니며 살아갈 수 있길 저 자신과 스님께 깊이 바라며 이만 마칩니다.

항상 깨어있고자 하는 도산 합장

바람직한 스님상

도운(사집반)

스님 그동안 안녕하십니까? 스님과 헤어진지도 어언 20여 성상이 꿈결같이 흘렀으니 당연히 멀어져야 할 스님의 모습이 오히려 더욱 성해짐은 무슨 까닭입니까? 저는 오늘도 효봉영각 앞뜰에 우두커니 선 채 저 푸른 하늘 한 가운데에 스님의 하얀 영상을 그려봅니다. 스님께서는 속세에서 살아갈 재주가 모자라 산을 찾으셨는데 산에서마저 설 땅을 밟고 물러났으니 스님이라고 호칭하지 말라고, 그러나 저는 누가 뭐라해도 스님을 스님이라 부르는데 추호도 인색하지 않겠습니다. 있어야 할 사람은 있지 못하고 가야할 사람이 남아 온물을 흐리게 하는 현실을...

스님, 저는 한 때 천국을 찾아 정신없이 돌아다닐 때 어느날 무슨 일로해서 대전역 대합실에 앉아 열차를 기다리고 있던 중 저만큼 앞좌석에 30대 중반인 듯한 한 스님이 앉아있었고 그 앞에 한 중년 부인이 쭈그리고 앉아 무슨 팜플렛 비슷한 책자를 들고 열심히 지껄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윽고 열차가 도착하여 저는 바로 그 스님 옆자리를 차지했으며 다시 열차는 달리기 시작했는데 얼마쯤의 시간이 흘렀을까? 옆자리에 앉아있던 수수한 옷매무새를 한 여인이 문득 물었습니다.

“젊은 아저씨 어디까지 갑니까?”

“.....”

그러면서 여인의 눈동자는 스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그 스님이 당황한 듯 한참 동안 그 여인을 바라보고 있더니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O O 역 까지 갑니다. 보살님”

“아저씨, 나보고 보살이라고 하지마세요. 나는 예수교인입니다”

“.....”

“글쎄 젊은 분이 무슨 할 짓이 없어 중이 되었담...” 여인은 몇마디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묵묵히 바라보기만 하던 그 스님은 혼잣말 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연작이 어찌 대붕의 뜻을 알랴!”

그리고는 그 스님의 눈동자는 저 멀리 푸른 하늘 흰구름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스님! 저는 그 스님의 바위처럼 당당한 모습과 재치있는 임기응변, 이것이 진정 『바람직한 스님상』임을 실감하였습니다.

스님, 저도 그때 천국을 찾던 사람 중 하나였으나 그 여인의 독한 심성이 너무 혐오스러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잘못 흐르는 세간 종교의 실상인 듯 합니다. 스님 저는 한 때 무슨 인연의 소치였든지 부산 남산에 있던 어느 무명의 신학교의 문턱을 기웃거린 적이 있었습



니다. 그 안에서 생존을 위한 인간의 원초적인 생존경쟁의 소용돌이를 체험하고는 저같이 어리석고 못한 자는 도저히 그런 곳에서 배겨낼 수 없음을 알고 결국 물러나 어두운 천지강산을 헤매 돌다 마침내 불도에 귀의하면서 『늦깎기』라는 『영광의 별』을 달고 내킨 김에 강원에 입방한지 어언 한해가 살같이 지나갔습니다.

『몸은 젊으나 마음이 늙으면 구세대요, 몸은 늙으나 마음이 젊으면 신세대』

라고 변명하면서 저는 오늘도 젊고 발랄한 학인스님들 뒷전에 앉아 덤으로 공부를 하고 있지만 불제자의 긍지와 신선함을 만끽합니다.

저의 20대 도반들은 저를 가리켜 2.8 60이라 부릅니다. 몸은 60대이나 마음은 2.8청춘이란 뜻이지요. (왜 진시황이 이같은 묘법을 몰랐을까?) 비록 왕후장상을 지냈다 하더라도 일단 이 길에 입문하면 처음부터 시작함이 당연합니다. 물론 그동안 잘살았든 못살았든 인생첩해(人生劫海)의 한 몫을 살아온 연륜은 충분히 보상받아 마땅합니다.

언젠가 스님께서 말씀하셨지요.

“20년 30년이라는 범람도 여법하게 살 때만 자랑스럽고 존경받을 가치가 있는 것이지 만일 그렇지 못할 때에는 오히려 부처님의 공양만을 축내는 아양승이나 오도사문의 불명예스러운 낙인이 찍힐 수 밖에 없다고, 때문에 참다운 구

범자는 범람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중차대한 과제는 먼저 인간이 되는 것이며 수행도 깨우침도 이 인간됨이 무시될 때 함께 무너지고 만다”

스님, 며칠 전 저는 좌하(坐夏)가 15년이 넘은 어느 스님과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 스님께서는 자신도 처음 수계받았을 때에는 청정하게 살려고 각별히 노력했었는데 세월이 흐르니 자연히 먹고 놀게 되더랍니다. 그러니 저도 하루속히 달팽이 집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합니다.

스님! 그러나 저 노보살님들이 허리춤에서 한 잎 두 잎 깊이 간직해 두었던 비록 구겨진 지폐 몇장이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공양한 그 시주물을 제가 먹고살며 감히 허튼수작에 현혹되어야겠습니까? 스님 저는 비록 소라고등 속에서 종명(終命) 하는 한이 있어도 지킬 것은 지켜져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지계는 우선 인간의 분방한 욕구를 제어하고 통제하므로 고행임에는 틀림없으나 이것이 오랜세월 훈습되어 자기 것으로 승화될 때 『바람직한 스님상』으로 정립되며 그 자체에서 대자유를 만끽하리라 믿습니다.

스님! 군더더기로 번뇌만 보태드린 것 같아 죄송합니다. 이 편지 또한 직접 보내지 못하고 허공에 띄움을 용서하십시오.

도운 합장.

화보로 본



4월 10-16일

조계사 승려대회에 강주스님을 비롯한 전학인이 참여해서 원로스님의 호법을 맡는 등 개혁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앞장서서 정진했습니다.

4월 26일

조계총림 울주이신 보성 큰스님께서 레이저 프린터를 보시하셔서 강원 전산실에 설치했습니다.



5월 5-6일

보조국사 종제 및 보살계 수계산림에 전학인이 소임을 맡아서 성대히 치렀습니다. 다각 소임을 맡아 애써주신 운문사 학인 스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5월 7일

무등산으로 봄소풍을 다녀왔



강원소식

습니다. 대중 차담을 마련해 주신 원효사 주지스님(현지)과 신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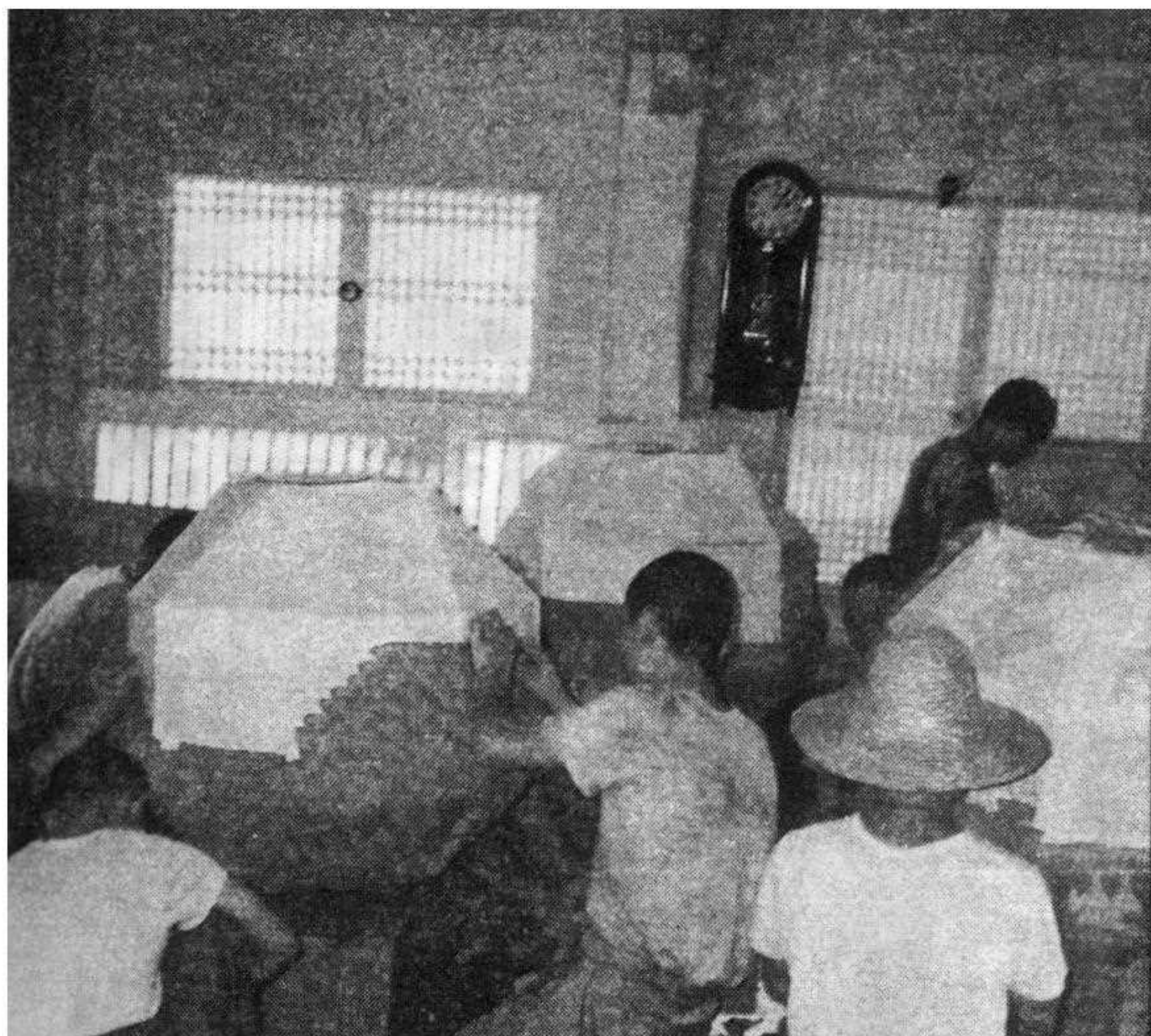
5월 10-12일

지광스님(인월암)과 함께 사중차밭에서 차따기 운력과 초파일 연등 만들기 운력을 했습니다.

5월 25일

강원 학인대중 37명이 하안거 결제 정진에 들어갔습니다. 치문반에 랑림, 무량, 종지, 덕명, 도제, 송원, 도선, 도환, 한운, 도성, 도산, 도은, 본연스님 등 13명이 방부드렸습니다.

영어, 중국어회화 특강이 개설되어 영어에는 지광스님(인월암), 중국어에는 승국스님(사교반)을 모시고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6월 3일

진여성 보살님(광주 원효사신도)이 컴퓨터를 보시하셔서 강원 전산실에 설치 했습니다.

6월 12일

조계산 정상 장군봉 주위에 산불이 났습니다. 오후 네시 경 대웅전 금고가 울리면서 시작된 산불 진화작전은 대중스님들의 자기몸 살피지 않는 보살행으로 저녁 8시에 완전히 끝났습니다.

6월 17일

고흥 수도암에서 운성노스님으로부터 전강식이 있었습니다. 정확스님, 원순스님이 전강을 받아 박한영스님의 강맥을 이어 새 강사스님이 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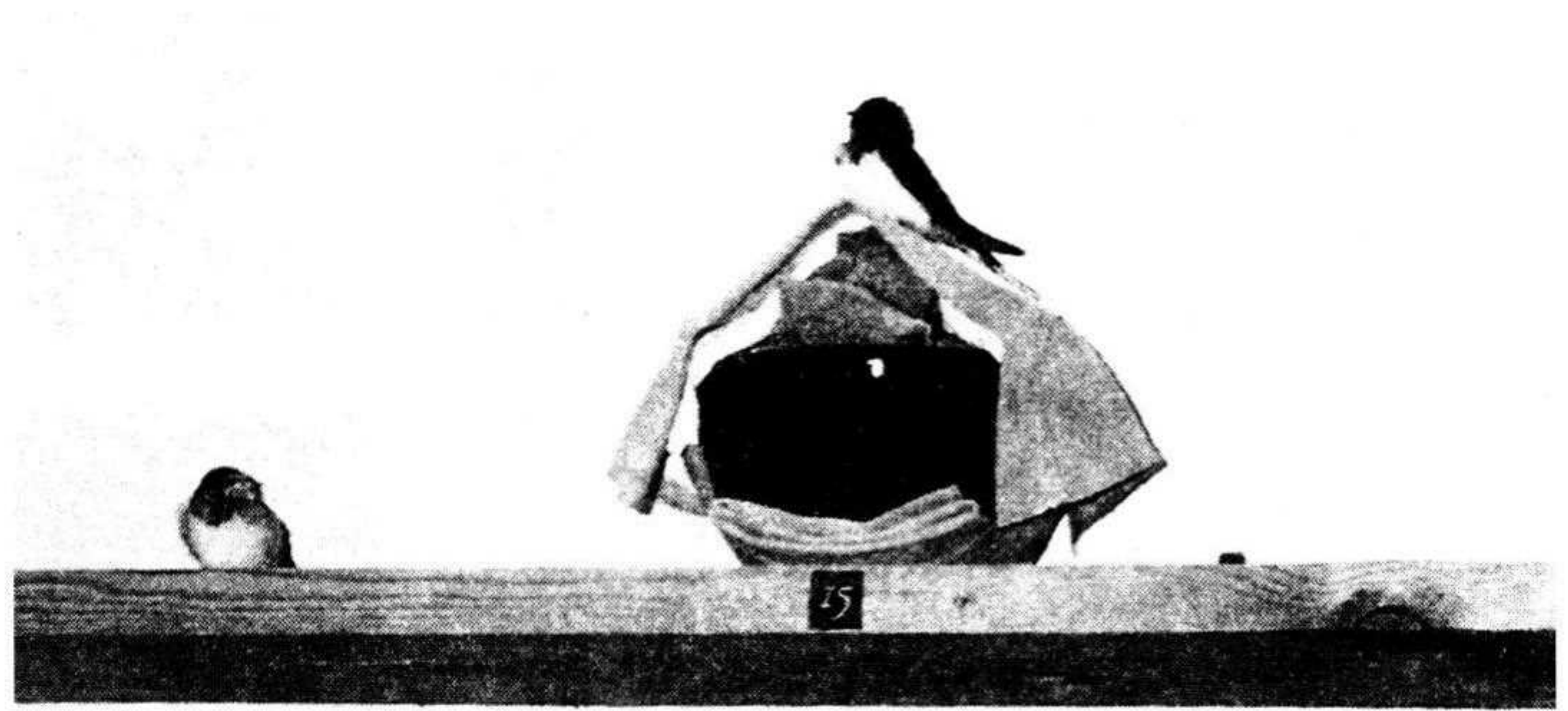
6월 18-19일

조계사 개혁성취 결의법회에 강원 전대중이 다녀왔습니다.

6월 25일

태고총림 선암사 스님들과 친선 축구시합을 했습니다. 해마다 있어온 만남이지만, 올해는 월드컵을 능가하는 열기와 함성으로 화합을 다진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 올봄 해청당 처마밑에 방부를 드린 제비 한 쌍이 새끼 다섯을 낳아 다 출가시키고, 학인스님들 간경소리에 맞춰 '발보리심 발보리심' 염불을 하고있습니다. 강원 제비 석달이면 염불을 한다?





수행자와 어머니

하일(사교반)



나는 3남 1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어려서 부터 병이 많아 어머니는 늘 막내 아들을 걱정 하셨다. 학교에서 돌아 오면 날씨가 덥다고 손수 부채질 해 주셨다. 그렇게 애지중지 키운 자식이 어느날 출가를 하니 어머니는 놀랐을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무슨 불만이 많아서 머리를 깎고 절에 들어갔느냐고 아우성이다.

“너는 나를 잊을 수 있어도 나는 너를 잊을 수 없다”

며 통곡 하시는 어머니. 이제 나이 칠십이 넘어서 무엇을 바라며 무슨 소원이 있으랴만은 어머니는 늘상 막내 아들이 사회에 나와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결혼해서 아들 딸 낳고 잘 살기를 바라신다.

내가 속세를 떠난 지 어언 3년의 세월이 지났다. 이제 어느 정도 속티가 빠졌는지 몸에서 뽀뽀한 중냄새가 나는 것 같다. 출가하여 부처가 될려고 왔는데 갈수록 바라던 부처는 못되고

지옥으로만 더 들어간 것 같다. 부처님처럼 6년 동안 하루에 쌀 1톨, 참깨 1톨만 먹고 고행하겠다고 들어온 내가 요즘은 먹는 것을 낙으로 살아가는 사람처럼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것저것 마구 먹다가 하루가 끝나는 것 같다. 이러다가 언제 도를 닦아 무상도(無上道)를 이룰런지 다시 한 번 반성하지 않을 수 없다. 출가해서 도를 이루기가 하늘의 별따기와 같이 힘들다는 것을 직접 머리를 깎고 수행 해보니까 어느 정도 실감이 난다. 속세에 두고 온 인연을 끊기가 어려워서도 아니고 먹을 것이 없어서도 아니다. 오로지 내 자신과의 끊임없는 싸움이 어려운 것이다. 자칫 자기자신에 속아 넘어가 버리는 나의 간사한 마음! 이놈이 문제다. 이놈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도저히 모르겠다. 아니 굳이알려고 하지도 않는다. 그저 마음을 붙 뿐이다. 도저히 알 수 없는 물거품 같은 이 마음을 깨닫기 위해 오늘도 정진에 정진을 거듭한다.

어머니는 전화를 자주 하신다. '아들아 제발 전화 좀 해라. 나는 네가 보고 싶어 죽겠구나.' 나는 어머니와의 전화에서 늘상 어머니와 아들의 가깝고도 먼 운명의 인연을 끊기위해 전화통이 깨어져라 소리를 지르다가 어머니가 자식을 버리지 못한 마음에 나는 한숨을 쉬고 전화수화기를 놓아 버린다. 나는 이 시점에서 눈물을 흘려야하나 아니면 마음을 냉정하게 먹어야 하나. 또 하나의 번뇌의 구렁텅이에 빠져버린다. 어머니와 자식의 관계, 어찌란 말인가. 생사 윤회의 고통인가. 제일 존경하고 가장 고마워 해야 할 어머니가, 머리를 깎고 수행을 해보니까 내가 넘어야할 첫번째 장애물인 것 같다. 어머니가 안보이는 다른 데로 도망을 가서 수행을 할까 아니면 어머니를 설득시켜 어머니 마음을 돌려 볼까하는 생각이 얽혀 나의 마음을 더욱 답답하게 한다.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 제자 목련존자가 출가 득도하여 어머니가 지옥에서 고통을 받는 것을 보고 부처님께 아뢰기를 '부처님이시여, 어떻게 하면 저의 어머니를 지옥에서 구제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부처님께서 '목련아, 음력 7월 15일(백중)에 여러 대중스님께 공양을 올리고 대중의 힘을 모아 지성으로 빌면 어머니를 지옥에서 건질 수 있다.'고 하신 말씀이 떠오른다. 지금 내자신이 부처님 당시의 목련존자 같다는 생각이 든다. 내가 도를 깨달아 어머니를 구제해야겠다는 생각이 가슴을 뭉클하게 한다. 지금은 비록 어머니께 불효를 하고 있지만 목련존자 처럼 어머니를 구제하면 그 보다 더한 효도가 어디 있겠는가.

어머니께서 또 전화를 하셨길래 이번 6월 18-19일 양일간 서울에서 승려대회가 있으니까 서울 누님 집으로 올라 오시라고 말씀드렸다. 시간을 내서 누님 집으로 아침 공양을 하러 도반 3명하고 같이 갔었다. 부모님은 이번에도 어서 사회에 나와서 장가가라고 아우성이셨다. 나는 언성을 높여가며 설득에 설득을 했다. 부모님은 나의 완강한 태도에 이제는 포기해야겠다는 생각이 드셨는지 통 말씀이 없으셨다. 시골에서 자식 얼굴 한 번 보겠다고 서울까지 오셨다가 부모님은 자식의 완강한 고집에 포기하고 내려가셨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의 아들은 못난 자식이 아닙니다. 지금은 불효하고 있지만 먼훗날 당신의 아들이 극락세계에서 편히 사시게 해드릴 때가 있을테니까 말입니다. 한 아들이 출가하면 9대가 하늘에 난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오늘도 정진에 정진을 거듭하여 이몸이 말라 비틀어 지더라도 깨달음을 향한 구도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초발심자의 눈물

보원(사집반)

그녀의 무덤에 다녀왔다.

2535년 5월 25일 경기도 마석 모란공원에 그녀를 묻은 지 삼년만에 출가사문이 되어 그녀를 다시 찾았다. 묘지 위에 붉게 노을이 질 때가슴이 저려왔지만 울진 않았다. 그해 5월, 평생 흘릴 눈물을 이미 다 쏟았는지 모른다. 우리는 동아리 선후배로 만났다. 나는 문학을 좋아해서 실천문학 동아리에 열심이었고 그녀는 00연구회라는 흔히 하는 말로 운동권 동아리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동아리방이 이웃해 있어서 서로 빗자루를 빌리거나 분필을 나눠쓰기도 하고, 책을 빌려 읽기도 했다. 그때 감명깊게 읽었던 소설 동의보감은 그녀에게 빌려본 책이었다. 그녀는 키가 작고 단발머리에 유난히 눈이 컸다.

그해 봄 매일같이 벌어지던 시위현장에서 그녀가 날라온 돌과 화염병을 내가 던지는 경우도 있었고 뒤풀이 자리에서 소주잔을 나누며 시대의 아픔을 함께 하기도 했다. 그녀는 나를 선배님 대신 '형'이라고 부르고 있었다.

그녀가 죽었다. 91년 봄 동구 사회주의 체제가 무너져내리고 제몸에 신나를 붓고 분신자살하는 젊은이가 줄을 이었다. 그녀는 그날 총무로 가두시위에 나갔다가 최루탄을 난사하며 달려드는 백골단을 피해 뒷골목으로 쫓기다가 쓰러졌다. 병원으로 옮겼지만 그녀는 끝내 다시 일어서지 못했다.

그녀를 묻고, 나는 한달 넘게 잠 한숨 거의 못자고 펄펄 끓었다. 눈을 감았다가 경찰의 군화발에 짓밟혀 울부짖는 그녀의 비명소리에 소스라치곤 했다. 병원에 실려가 모르핀 주사를 맞고 깜박깜박 꺼져가던 기억은 지금도 숨을 막히게 한다.

다음해 졸업을 하고 취직을 했다. 모든 것을 잊고 일에 파묻혀 살려고 했지만 회사가 노사분규에 휘말렸다. 내가 편히 쉴 곳은 이땅에 없는 듯 했다. 그때 우연히 법정스님이 쓴 효봉스님 일대기 '달이 일천강에 비치리'를 읽고 송광사에서 머리를 깎았다. 어머니 품 속 같다는 조계산에 안겨 하루하루 다시 태어나는 기쁨에 젖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 4월 11일 조계사는 전쟁터였다. 총무원이 들어있는 불교회관 뿐 아니라 조계사 경내까지 점령한 경찰을 몰아내기 위해 오전부터 시작된 몸싸움은 석등이 무너지는 바람에 전경 여러 명이 깔려 병원에 실려가는 불상사를 빚었다. 경찰은 불교회관 앞으로 물러났고, 자신감을 얻은 스님들은 총무원을 차지하고 있는 경찰을 몰아내고 간헐 계신 원로스님들을 구출하자며 전경을 밀어붙이기 시작했다.

비구니스님들과 신도들까지 합세해서 전경과 밀고 밀리는 육박전이 벌어졌다. 스님과 신도, 전경이 얽히고 설켜 흑면지가 자욱히 일고 신

도안스님이었다. 둘이 나란히 서서 죽비소리에 맞춰 참회의 절을 올렸다. 천 배를 넘어서자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마음은 그렇게 후련할 수가 없었다. 송광사 학인스님들이 속속 모여들었고, 비구니스님 수십 명이 참회정진에 동참했다. 오후에는 선방 수좌스님들이 좌복을 펴고 앉아 정진에 들어갔다.

발이 벗겨지고 여기저기서 비명소리가 터져나왔다. 나는 맨앞에 있다가 방패 사이에 끼여 숨이 막혀 헐떡거리다가 투구를 쓴 전경의 눈과 마주쳤다. 앓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어쩔 줄 모르고 있었다. 뒤에서 고참이 건어차는지 이를 악물고 신음을 삼키고 있었다.

비구니스님들이 하나 둘 쓰러져 실려 나갔고, 우리강원에 갓 입방한 종지스님이 실신해서 들려 나가는 것이 보였다. “서의현을 타도하자” “최형우는 자폭하라” “김영삼은 퇴진하라” ... 최루탄만 터지지 않았을 뿐 나는 출가 전 그 자리에 다시 와 있었다. 내가 그토록 증오하고 저주하던 폭력이 난무하는 아수라장에 다시 서 있었다.

나는 마스크와 장갑을 벗고 물러나 종고루에 올라갔다. 진정 내 마음을 쉴 곳은 없단 말인가. 마지막 귀의처로 믿었던 불교마저 나를 버리는가. 기둥을 부등켜 안고 엉엉 울었다. 그날 조계사에 자비는 없었다.

4월 12일 날이 밝자마자 나는 가사장삼을 수하고 불교회관 앞으로 갔다. 그런데 벌써 누군가가 전경 쪽을 향해 절을 하고 있었다. 우리강원에서 함께 공부하고 있는 도안스님이었다. 둘이 나란히 서서 죽비소리에 맞춰 참회의 절을 올렸다. 천 배를 넘어서자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마음은 그렇게 후련할 수가 없었다. 송광사 학인스님들이 속속 모여들었고, 비구니스님 수십 명이 참회정진에 동참했다. 오후에는 선방 수좌스님들이 좌복을 펴고 앉아 정진에 들어갔다. 나는 삼천배를 넘게 했지만 조금도 힘들지 않았다. 그날 조계사는 수행자로 가득했다.

개혁회의와 정부간의 갈등이 깊어가고 있다.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지금 언제 어느

때 삼사월의 조계사 사태가 다시 벌어질지 모른다. 그때 우리는 다시 폭력이 난무하는 아수라장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참회정진으로 의연히 맞서는 수행자의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지난 초과일 봉축행사를 마치고, 빗속에 아스팔트 바닥에서 청년불자들이 보여준 오체투지는 이천만 불자의 가슴에 환희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행사교육원에서 일보일배를 경험했던 스님들은 감회가 남달랐을 것이다.

우리가 외도라고 하는 힌두교도 간디도 평생 아힘사(비폭력)를 실천했고, 예수님도 ‘악한 자를 적대하지 말라. 누가 네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내밀어라. 누가 만일 걸옷을 빼앗거든 속옷도 내주라’고 했거늘, 우리는 위없는 보리를 이룬 대자대비한 부처님을 따라 깨달음을 위해 출가한 수행자가 아닌가!

부처님이 부루나 존자와 나누었다는 다음의 대화는 개혁을 맞은 한국불교에 던지는 한줄기 빛이 아닐까. 어느날 부루나는 부처님께 서쪽지방에 가서 포교를 하겠다고 청했다. 부처님이 그에게 물었다.

“서쪽 사람들은 사나우니 욕을 하면 어떻게겠느냐?”

“때리지 않는 것을 다행하게 생각하겠습니다”

“만일 때린다면?”

“몽둥이나 돌로 치지 않는 것을 다행으로 여기겠습니다”

“몽둥이나 돌로 친다면?”

“죽이지 않는 것을 다행으로 여기겠습니다”

“만약 죽인다면?”

“열반에 들게 해주는 것으로 알고 감사하겠습니다.”

송광사에서 한해를 보내고

송원(치문반)

며칠 지났다 싶는데 벌써 한 해가 지났습니다. 작년 초과일을 일주일 정도 앞두고 송광사에 출가하던 날의 송광사 들어오는 길의 광경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매표소를 지나 일주문까지 이르는 그 길은 청량한 계곡물 소리와 길 양쪽에 늘어선 고목의 푸른 잎새들이 시원한 그늘을 드리우는 정말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 내고 있었습니다.

행자로서의 저는 매일 예배하고 대중스님들을 위한 공양을 준비하고 울력을 하면서 '복과 선근이 없이는 어떠한 것도 마음먹은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순간순간만을 넘기려는 자세와 최선을 다하려는 자세는 분명히 차이가 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저는 기쁨이 충만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세속과 출가인의 생활이 크게 다름이 없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불법과의 만남이 저에게는 어두운 길을 밝혀주는 햇불입니다. 목마른 사람에게 감로수로 적셔주는 것만 같습니다.

송광사에서는 행자 때 초발심자경문을 배웁니다. 수행자로서 가져야 할 마음가짐과 하지 않아야 할 행동, 수행정진해야 하는 필요성을 배워 신심을 더욱 불러일으켜 줍니다. 매일 강사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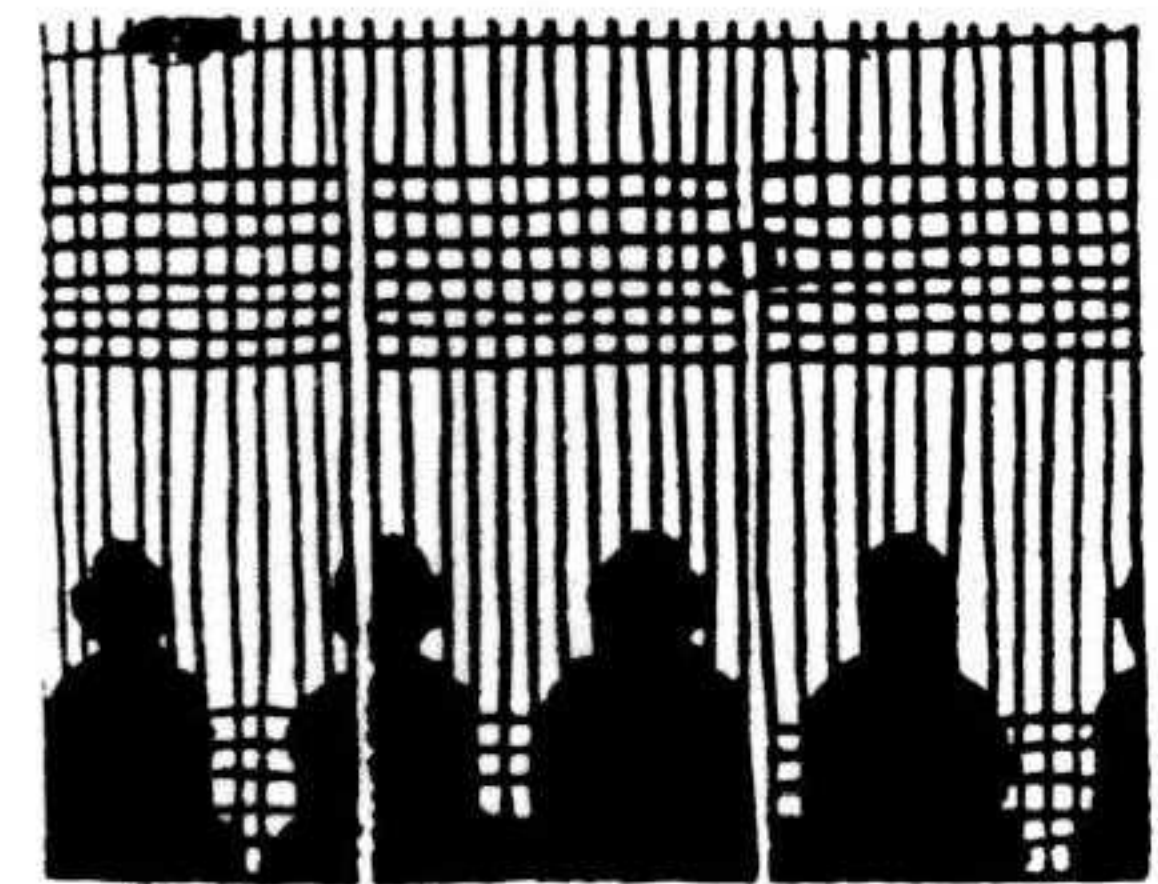
들의 열의 있는 강의로 불법을 배웁니다. 이렇게 행자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송광사에서 1년 동안 느낀점이라면 속세의 냄새를 맡을 수 없으며 계율정신이 철저하다는 것입니다. 때가 아니면 먹지 말고 때가 아니면 움직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배운 저와 저의 도반들은 행자교육원에서 그 위외가 남달리 드러남을 보았습니다. 요즘 개혁을 한다고 합니다. 저는 행자교육원을 시발점으로 해서 체계를 세워간다면 멀지 않은 기간에 바른 견해를 가진 승려들이 많아지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행자교육이 현실불교를 바르게 하는 밑거름이 되리라 여겨집니다.

우리는 요즘 잃어가는 것이 많다고 봅니다. 스님들만이 풍길 수 있는 향기를 잃어가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부처님 당시에는 걸어가는 사문의 모습을 보고 거룩함을 느껴 출가했다는데, 스님들의 위외 잃은 모습을 보면 불교의 본래 모습을 잃어가는 듯해서 안타깝습니다.

비록 저는 초발심한 풋중에 불과하지만 달리 본다면 여러가지 욕락에 때가 덜 묻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스님이 지나가는 말로 과연 조그만 허물도 없는 스님들이 있겠는가 합니다. 마음과 몸의 출가를 잊어버리고 생활하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출가했다면 어찌 돈과 명예를 마음에 두겠습니까. 몸이 출가했다면 어찌 가정 이 있고 처자식을 두겠습니까. 출가의 근본에서 벗어난 것이겠지요. 출가인의 향기를 되찾는게 개혁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우리는 신도를 만나면 부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전하는 것으로만 그칠게 아니라 직접 실천에 옮기는 것이 한국불교의 모습을 되찾고 또 개혁이 아닌가 싶습니다. 무상을 알지만 무상에 맞지 않은 행동을 하면 무상을 모르는 수행자입니다. 부처님의 수행시절을 생각합시다.



원고모집

「해청당」에서는 다음호 원고를 모집합니다.

글의 형식이나 주제는 자유이며, 진실되고 소박하며 꾸밈이 없는 글이면 환영합니다.

강원대중 모두의 「해청당」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동참 바랍니다.

원고는 수시로 접수하오니 언제라도 편집실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해청당」 편집실

만행 7박 8일

원당(사집반)



첫째날

행각 첫째날 오후 비행기 편으로 제주도에 도착했다. 시내의 포교당을 대상으로 휴식처를 구하였으나, 몇 곳을 물색하고서야 겨우 방바닥이 오히려 사람 득불 정도의 방사를 얻어 잠을 청하였다가 반 뜬눈으로 지새워야 했다. 새벽 예불 후 가까운 목욕탕에 들러 몸을 녹이고 나니 어느정도의 피로가 풀린듯 하였다.

한라산 깊숙히 자리 잡은 도내 명찰 천왕사를 시작으로 하여 영실의 오백 나한 기암을 멀리서 가까이서 음미하면서 자연의 경이로움에 환성을 토하지 않을 수 없었다. 눈이 쌓여 일부가 녹아 내린 암벽은 그야말로 멀리서 바라보니 폭포가 되어 꿈틀거리고, 물론 인간이 만들어낸 감정을 이미지네이션화한 한갓 바윗덩이에 불과하지만, 겨울 눈과 조화를 이룬 암석의

아름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고, 또 그 눈 위를 뽀드득 뽀드득 밟으며 산을 오르는 그 기쁨은 정말 최상이 아닐까. 바다를 끼고 시야가 탁 트인 산방굴 주위에 대처종단의 몇 사찰들이 어지럽게 산재해 있었다. 법당 안도 갖가지 상과 탕화들로 산만하게 배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비좁은 공간에 짙은 향내음과 그으른 연기가 내부 분위기를 음침하게 만들고 있었다. 지척에 제주 최남단인 마라도를 조망하면서 새롭게 중창불사에 한창인 법화사에 들러 행자생활을 우리절에서 하였던 한복스님을 우연히 만나 환담후, 그 스님의 배려로 도내 최대 도량으로 손꼽히는 약천사에서 여정을 풀었다. 제주도 내에서 새롭게 각광받고 있는 약천사는 바닷가에 인접해 평지를 이룬 넓디 넓은 도량으로써 큰법당, 동굴법당, 요사채 등이 속속 건립 진행중이었다.

성산 일출봉의 특이한 바위덩이와 동해쪽의 수평선. 밀려와선 부딪치는 흰파도 등에 넋을 잃고 감상에 젖은 후 가까운 사찰을 찾아 점심을 먹었다. 생선류가 위풍당당하게도 상 위에서 뛰어논다. 나름대로의 사정을 변명으로 듣고보니 그렇듯하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선 새로운 양식인 산치대탑식(복발형)의 큰법당안에 십만불을 봉안하게될 고관사의 불사현장을 돌아보면서 1년전의 진척상황과 거의 변화 없는 것을 보니 얼마나 어렵게 진행되는지 짐작이 간다. (특이한 것은 제주의 풍부한 현무암 석재를 이용하여 양음각한 부처님을 조성, 벽에 부착시키는 기법을 도입) 포교방법에 따라서 심성도 독특하게 개발이 되지만 이 지역의 특성상 풍어와 안전을 최일선으로 삼고있는 기복적인 불교의 현실을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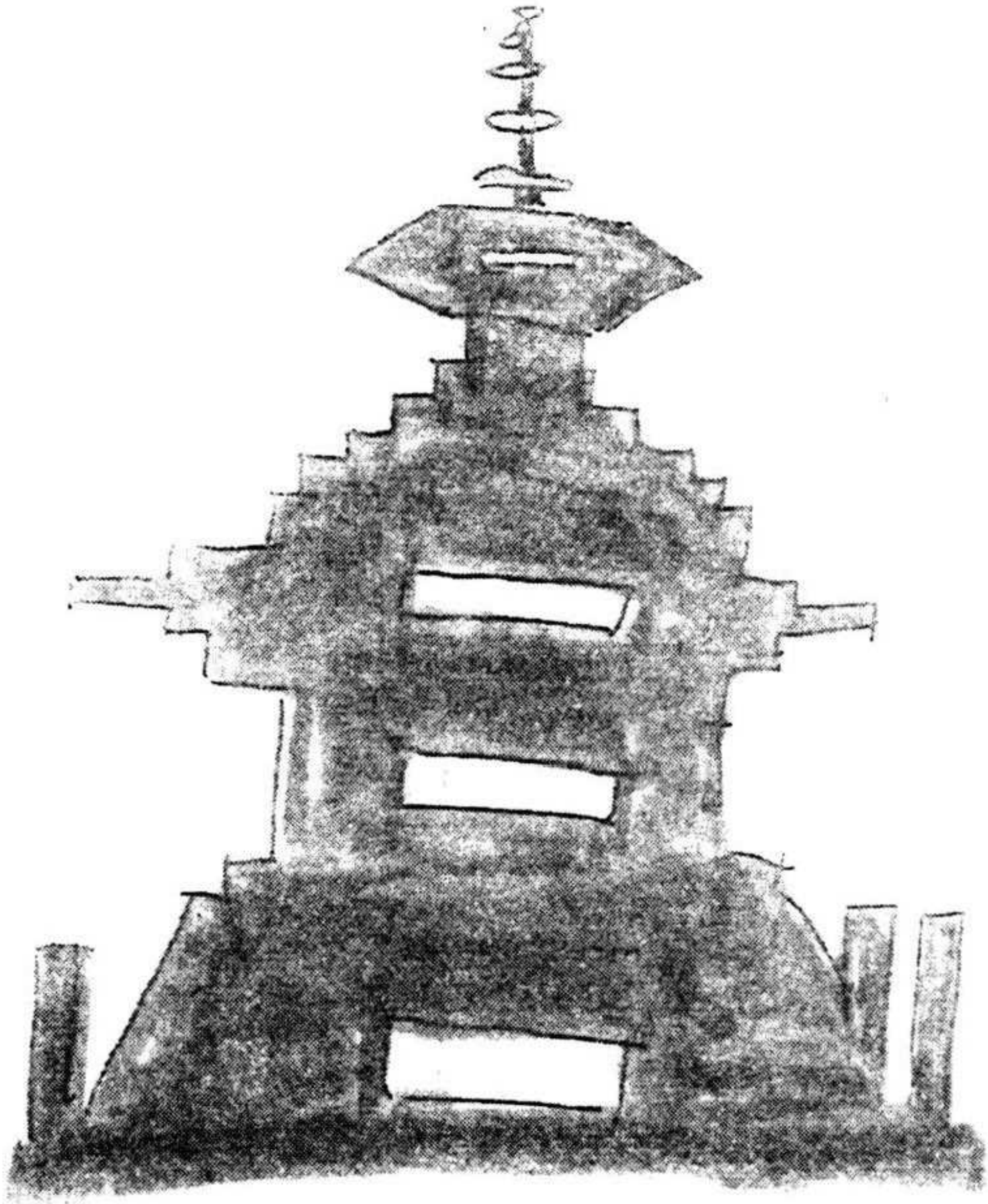
네썸날

전반기에 미리 행각나간 도반스님 사찰로 찾아가 피로를 풀고 다음날 도반 은사스님의 배



려로 군위 제 2 석굴암 -- 토함산의 석굴암보다 조성연대가 앞선 최고의 석굴로서 시대 흐름에 따라 사찰이 소실되고 석굴마저 방치된 채 나무와 칩닝쿨로 가려졌던 것을 일제시대 나뭇꾼이 발견하여 그 빛을 되찾아 보물로 지정되어졌는데, 폐사지엔 제법 위의를 갖춘 법당과 요사 등이 잘 배치된 도량으로 일신되어 있었다. 최근에는 단체 참배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한다. --을 거쳐 일연 스님께서 말년에 삼국유사를 저술 하시며 노모를 직접 시봉하셨다던 인각사(부도 등이 있는 사지 일부가 중수되고 있는 중임)가 큰 개천의 깎아지른 암벽을 전경으로하여 도로변에 펼쳐져 있었다. 저술 활동을 통한 효도를 행하기에 그지없이 좋은 마치 엄마 품같이 포근한 느낌을 받았다.

신라최초의 불교 도래지이며 아도 화상의 숨결이 살아있는 도리사는 진신사리가 모셔져 있어 보궁 성지순례 코스로 손꼽히는 도량이며, 가까



이 모례의 집(모례정)이 보존되어 있는 등 유서 깊은 성지이다. 보궁에 참배하고 내려오니 벌써 냉랭한 기운이 감돌며 어둠이 깃들고, 멀리 구미 시내의 전기불빛이 은하수되어 발밑에 안락토를 이루고있는 듯하였다.

다섯째날

달콤한 수면을 맛보고 이른 아침에 조용히 객실을 빠져나와 옛 스님들의 운수 행각의 어려움을 몸소 체득하며 공복에 10여리의 포도를 터벅터벅 걸어 내려와 지나가는 차편에 그날의 일정을 맡겼는데 다행히 상주행 출근차에 편승, 시내의 유서깊은 남장사로 급한 발길을 돌렸다. 문경 소재 대승사와 쌍벽을 이루는 목각 후불 탕화와 건축기법이 독특한 여러 법당이 좁은 공간에 잘 배치되어진 동 가람은 한번쯤 머물고 싶은 충동을 안겨 주었으며,이절 뒤편 6킬로미터 쯤 떨어진 곳에 자리잡은 북장사의 보물들이 유혹하였으나 『1일 3사행각』의 엄격

한 일정에 얽매여 대기 시켰던 차편으로 시내 개울가에서 중생을 보살펴주시는 모친 석조 여래상(보물로 지정은 되었으나 보호각이 없어 관리상 문제점이 있음)을 잠깐 친견하고 용맹정진 참선도량인 고운사로 발길을 재촉했다. 자그마한 선원은 산철을 맞아 텅 비어 있었고, 깊은 골을 이용해서 길쭉하게 배치된 도량에서 약간은 산만하면서도 평온한 느낌을 받았다. 나오는 길엔 불자가 이용하는 차편에 편승한 덕택으로 날이 저물기 전에 한국 조계종 특별 정진도량인 봉암사에 도착하였는데, 일신 변모한 선원과 큰법당 등이 한골짜기를 꽉 메운 수좌들의 낙원인 이곳은 젊은 주지스님의 원력으로 화려하게 가꾸어져 있었다. 선 전문도량엔 어울리지 않는다는 주위의 평이지만 먼 미래를 볼땐 불사를 잘한 듯하다.

여섯째날

경북 북부지방의 고찰로 손꼽히는 예천 용문사와 안동 봉정사의 옛스러운 기풍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보물급 건물들을 둘러보면서 원력 보살의 손길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다. 석양 무렵엔 입구 10여리 길을 무거운 발걸음으로 올라 소백산 자락으로 향했다. 부석사에 오르면 주지스님의 원력으로 새롭게 선원을 신축하려고 터를 닦고 있었으며 예전의 낡은 요사들도 새롭게 단장되고 있어 예천 용문사와 더불어 그래도 힘있는 스님이 계시다는 한 증거를 본 듯하다. 아뿔튼 역사적인 무량수전 등으로 유명한 이 도량에 선원이 개설된다니 한국 불교의 밝은 면을 엿볼 수 있었고 이 다음엔 꼭 한 철 정도 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일곱째날

행각 일주일째되는 날은 열차편으로 강릉으로 향했다. 도착해보니 오지에 자리잡은 건봉사까지의 차편이 여의치않아 택시를 부득이 이용하였다. 금강산 내에 위치한 옛사지인데 부처님의 진신사리 친견 법회 및 도량 중창 기도가

진행 중이었다. 다시 오기어려운 곳이며 최북단에 위치한(휴전선 인접에 위치) 곳을 밟게되어 짜릿한 전율이 느껴졌다. 아쉬움을 남기고 항공기 탑승, 이내 서울에 들어서니 서쪽하늘에 해가 걸려있었다.

여덟째날

공기 탁한 시내 포교당에서 일박하고 여주 신록사, 인근의 불교 미술품이 전시된 목아박물관을 관람하고 고달사지에 이르니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다. 물론 개인사찰로 브록건물이 한 채 자리잡고 있으나, 타종교인의 손에 넘어가게될 위기에 처해 있다는 말을 듣고 문화유산을 계승 발전시켜야할 종단의 힘을 의심하지 않을수 없었다.

이것으로 3인의 만행팀은 총 8일간의 여정을 끝냈다. 객이되어 전국을 행각하는 것은 산 지식을 습득하는 좋은 기회인 것은 말할 필요도 없지만, 무리하게 세운 일정으로 육체는 피로에 찌들렸다. 『1일 3사순례』, 『새벽 예불 후 참회기도』, 『객비에 연연하지 않을 것』 등의 행각 철학을 세운게 큰 도움이 된 듯하다.

처음 갖게된 동반 만행이라 외형적인 답사에 그치다 보니, 제방의 선지식을 친견할 기회를 마련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다. 아무튼 세인들은 엄두도 못내는 출가자만이 만끽할 수 있는 이런 행각이 앞으로 각자의 수행에 밑거름이 되어 정진하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枕溪聽石

枕溪樓 높은다락 시내베고 누었으니
물소리 귀를 식거 세상일 알 수 없고
다만지 들여오는 건 줄줄이 흐른 물소리

• 枕溪聽石 : 송광사 內八景의 하나

— 이암스님의 송광사순례시조집 중에서 —



특별기고

1. 강원은 교육기관이라기 보다는 修行道場이다

지운(강주스님)

講院은 修行道場이고 學人은 求道하는 修行者다

- 目 次 -

1. 강원은 교육기관이라기 보다는 修行道場이다.
2. 佛法을 학문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가?
3. 깨침에 이르는 방법은 오직 한가지, 觀照에 있다.
4. 강원에서의 교법공부로 과연 진리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가?
 - 1) 敎法은 因의 힘을 가지고 있다.
 - 2) '공부'라는 말의 意味는?
 - 3) 看經하는 방법
 - 4) 예불, 참회, 정근, 염불 및 모든 습의는 수행이다.
5. 그러므로 講院은 修行道場이며 學人은 求道하는 修行者이다.

(1)

종단 개혁회의에서 주장하는 종단 개혁안의 초안을 보면 다음과 같이 종현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그 시정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1. 현행 승가교육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1) 수행과 교육의 구분

현 종현에서는 교육과 수행을 구분함에 있어 교육기관과 수행기관을 혼돈하고 있다. 교육은 수행과 전 법과 교단 수호의 목적을 위한 준비 단계로서 불교사상과 수행자로서의 자질과 태도를 확립하기 위해

수학하는 과정이다. 기초, 기본 교육 과정을 마친 승려라야 비로소 수행이든 포교든 외호행정이든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승니법 제8조에 의하면 기본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 한하여 구족계를 수지할 자격을 부여한다고 하니, 기본 교육과정은 승려가 되기 위한 요건사항이다. 반면 수행은 평생동안 주체적이고 자율적으로 수행과 전법행을 실천함을 뜻한다. 그렇기에 강원, 승가대학은 교육기관이고 선원, 염불원 등은 수행기관이다. 그러나 종헌은 제85조에서 교육기관으로 총림, 선원, 율원, 강원, 승가학원, 염불원, 승가대학, 연수원, 행자학원 등을 들고 있어 혼돈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하여 선원, 염불원 등에서 수행하는 것을 교육받는 것으로 사고하여 대다수 스님들이 제도교육을 회피하려 하고 있다. 반대로 강원 등의 교육기관에서 교육받은 사람들은 스스로를 수행자라 생각하여 제도적인 틀안에서의 지도와 통제를 받지 않으려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¹⁾

라고 하여 강원을 수행자가 되기 위한 기본 교육기관으로 못박고 있다. 그 논리대로 하자면 강원의 스님들은 수행자가 아니다. 그렇다면 깨달음은 교육을 받고난 뒤에 수행했을 때만이 가능한 것인가. 즉 불법에 진리를 깨칠 수 있는 신분적 차별이 존재하는가. 마치 神에 의하여 정하여졌다고 하는 인도의 카스트와 같은 제도가 佛法 안에도 존재하는가. 말하자면 누구는 깨칠 수 있고 누구는 깨칠 수 없다든지 또는 누구는 더디게 깨치고 누구는 금방 깨칠 수 있다든지 혹은 男女老少를 구분하고 貧富貴賤을 가려서 부처님께서 정하신 것인지 아니면 율에 정해져 있는 것인지, 아니면 佛法자체에 그러한 차별성이 존재하는지 아니면 제도개혁하시는 스님들께서 정하신 것인지 알고싶다.

알다시피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는 미혹에 의한 괴로움이다. 이것이 사문이 출가하여 해결해야 하는 첫번째 문제이고 출가의 진정한 이유일 것이다. 이 생사문제는 一大事이므로 뒤로 미룰 수 없는 出家沙門 各人의 현실적인 문제이다. 이 생사문제의 해결은 수행을 통한 깨달음으로 가능해 진다. 그런데 이 깨달음이 어떤 특정인이나 어떤 지위를 가진 이들에게만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거나 불법에 그러한 것이 제시되어 있다고 한다면 누구나 웃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또 어떤 제도에 묶여서 진리를 깨닫는 것을 뒤로 미루어야 한다면, 또 제도적 장치에 의해서 어떤 준비단계가 필요하고 그 준비 단계를 거쳐야만 깨달을 수 있다면, 바꾸어 말하자면 교육이라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일정의 교육을 받고 난 뒤에야만이 수행하여 깨달을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면 이보다 더한 독선이 없고 이보다 더한 횡포가 없다고 생각된다. 누가 감히 순간순간 찔박해 오는 生死의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자유를 박탈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출가자는 누구나 사미(니)든 비구(니)든 관계없이 생사해탈을 위해 수행하는 수행자가 그 본모습임이 아닐 수 없다.

깨침에는 차별이 없다. 男女老少 貧富貴賤이 없이 누구나 깨달을 수 있다. 열반경에는 마음이 있는 자는 모두 깨달을 수 있는 佛性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그 이유는 法(진리)은 본래 평등하기 때문이다. 출가자는 비록 사미(니)든 비구(니)든 관계없이 아니 차별없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이다. 법을 깨닫는 것에는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그 권리가 주어져 있다. 그것은 다르마(法)의 특성에 잘 나타나 있다. 이에 대하여 아함부의 여러 경전에는 다음과 같이 다르마의 특성을 여섯가지로 간추려질 수 있다고 설해져 있다.

- (1) 법(dharma)은 잘 설해져 있어 처음도 좋으며 중간도 좋고 끝도 좋다
- (2) 지금 그리고 여기에서 볼 수 있다.
- (3) 법의 발생 후 곧바로 그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즉시적이다.
- (4) 탐구할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
- (5) 법을 자각함으로써 우리는 법을 피난처로 삼을 수 있다. 또한 존귀한 사람을 열반으로 이끌어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
- (6) 현명한 사람에 의하여 직접 체험될 수 있다.

1) 종단 개혁안 초안 (범승가 종단개혁 추진회 p.30-31)

만약 존재의 본질에 대한 가르침이 위에서 말한 다르마의 여섯가지 특성에 맞지 않다면 그것은 진리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참으로 존재 본래의 모습이 현실적으로 증명 되지 아니하고 또한 그 가르침을 실행에 옮겨서 즉시적으로 효과를 가져 오지도 못하고 그 결과가 바로 눈으로 확인될 수 없는 것이라면 그것을 어떻게 진리라고 말할 수 있으며, 설사 진리라고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들의 갖가지 괴로움을 해결하여 귀의처가 되지 못한다면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단정하여 말할 수 있다. 뿐만아니라 그 진리가 보편타당하게 인식되지 못하고 단지 특정의 사람들에게만 인식 가능한 것이라면 그러한 진리는 그림의 떡에 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존재의 본질을 추구하여 나타난 진리가 우리의 모든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힘이 있을 때만이 그것은 진리로서 인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존재의 실상을 규명하는 것은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작업,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아니다.

그러나 승가의 공동체를 유지하는데는 上下의 위계질서가 필요하고 그에 따르는 규범이 생기게 마련이다. 그것이 계율이다. 律에 의해서 사미(니)와 비구(니)는 상하의 위계가 있고 같은 비구(니)라도 법랍의 차이에 따라 선후의 위계가 주어지는 것이고 坐次의 순위가 정해지는 것이다. 그러나 法(眞理)의 차원에는 이런 것이 없다. 그러므로 法은 漸次가 없지만 사람에게에는 漸次가 있다고 육조혜능스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2)

이제 종단개혁추진회의에서 주장하는 교육의 의미부터 살펴보자. 종단개혁추진회의에서 교육과 수행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자하는 의도는, 단지 한국불교의 현실로 볼 때 시미(니)계를 수지 후 바로 선원에 입방하거나 혹은 소임을 본다든가 또 제반이 중, 유량승이 되어 승려의 질적 저하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승려로서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게하기 위해 기본교육기관이 필요하게 된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수계 후 바로 禪院에 입방하여 실참실수하고자하는 이들의 언행이 대중생활의 조화를 쉽게 깨트리는 경향이 많아 선원의 청규가 무너지고 다른 납자의 수행을 방해하기 때문에 기초 선원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것은 한국불교의 슬픈현실이다. 그 원인의 하나로 講院이 제구실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 것이라고도 생각된다. 그러므로 승가는 비구 비구니의 二部衆에 의하여 존속되며 사미와 사미니는 승가의 일원이 되기 위한 예비승려이기 때문에 수계 후 정식 승려가 되기 전까지 교육이 필요하고 정식 승려가 되었을 때 비로소 선원등의 수행기관에 들어가 수행을 할 수 있다는 의미가 들어 있다고 생각된다. 말하자면 부처님 당시에는 이십세 이상의 남자는 곧바로 비구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佛般泥洹經卷下>에 의하면 부처님의 말씀에 佛滅度後에 20세가 넘어 사미계를 받지 않는 사람이 출가하려고 했을 때 具足戒를 받을 자질이 충분한지 그렇지 못한지 확인되지 않았을 경우 3개월의 시한을 두고 출가하려고 하는 사람의 자질에 따라 그 수계기간을 정한다. 만일 출가자로서 言行이 일치하고 求道心이 있고 精進力을 갖추고 있어 뜻이 높고 행실이 깨끗하다면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3개월 후 바로 계를 주고 그렇지 못할 경우는 3개월 후 먼저 沙彌十戒를 주고 三年동안 계를 범하지 않고 잘 지키는가를 보아 具足戒를 주라고 설하고 있다.²⁾

이 경전에 依據한다면 현 조계종에서 沙彌戒를 받고 4년이 경과한 자라야만이 비구(니)계를 받고 구족계를 수지할 수 있는 것은 부처님 가르침에 충실히 따른 것으로 상당한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 말하자면 비구계를 받기 전까지의 기간이 교육기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현 강원에서 공부하고

2) 吾泥洹後 凡諸來者 觀于志趣 視于坐起 採于語言 察于躡步 知于施行 善惡所趣 求道用心 精進樂不 三月審察 志高行淨 可衆乃用作比丘 身既作比丘 當選耆舊明於法律 爲之作師 授其十戒 奉戒三年 兢兢不虧 衆賢咸可當 授與二百五十戒 十戒爲本 二百四十戒爲禮儀 (大正藏 第一卷 阿含部上 p.172 中)

있는 학인스님들의 대다수가 사미(니)이므로 교육의 대상자임에는 틀림없다. 강원의 沙彌科의 履歷과 목 중 沙彌(尼)律儀에는 사미와 사미니가 지켜야 할 것과 행해야 할 것, 그런데 익혀야 할 것과 배워야 할 것을 명시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계율의 차원에서라면 기초 혹은 기본교육이 필요하다. 율장에도 사미(니)는 依止師가 필요하고 설령 비구(니)가 되더라도 지혜로운자는 5년 또는 10년간 依止師에 의지해서 가르침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지혜롭지 못한 자는 단 하루도 依止師없이 혼자 수행하지 못하고 평생을 依止師에게 의지해야 된다고 四分律에서 설하고 있다. 이 교육의 내용은 출가자의 생활방식을 익히고 출가자의 威儀를 익히는 과정과, 수행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일들은 교육적 개념에 가까운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3)

그러나 율장에는 교육이라는 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대신 戒律이라는 말속에 교육적 요소 내지 효과를 함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승가의 교육이란 승가 공동체의 질서유지 차원에서의 교육이 그 본질이지 다른 것이 아니다. 사실 그 본질도 알고 보면 수행하여 깨치기 위한 시스템이다. 그리고 보면 교육을 받고 난 뒤에야 비로소 수행을 할 수 있다는 논리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생사해탈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 된다. 승가공동체 성립의 이유와 목적에 대하여 생각해 보자. 거기에는 입산 출가하여 僧伽에 들어와 修行을 하고 싶다고 願하는 修行者 個人의 「意志」와, 僧伽의 統制을 維持해 가기위한 「律法」과의 두가지 성격을 합쳐서 考察할 必要가 있다. 僧伽의 成立은 基本的으로 僧伽를 形成하기를 願하는 成員의 意志에 근거하고 있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모인 이상 그들이 一致된 團體行動을 취하기 위한 객관적인 규범이 필요하게 된다. 승가의 구성원리를 생각할 경우, 이 二重構造를 無視할 수는 없다. 前者는 修行者 個人의 主觀的인 決意이고, 이것을 「戒」라고 부른다. 後者는 僧伽라고하는 團體의 規則이고, 이것을 「律」이라고 부른다. 律은 僧伽의 規則이므로, 修行者들이 그것을 지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規則으로서의 客觀性을 가질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승가집단내에서 각 개인의 행위규범을 수행자들 個人의 主觀的인 判斷에 맡겨 버린다면 승가라는 집단으로서의 일치된 團體行動을 期待할 수 없다. 따라서 승가를 存續시키기 위해서는 개인의 意志를 초월한 객관적 規範이 어떻게든 必要하다. 이 규범에 의해서 비구들을 강제적으로 일치된 행동에 복종시키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타율적인 규범도 승가공동체 유지가 그 목적이라는 것, 즉 그 규칙이라는 것이 승가전원이 평화롭게 수행해 가기 위하여 정해진 것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말하자면 생사해탈을 위해 수행하는 것이고 또 그 수행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 규칙이 필요하므로 律이 존재하는 것이다. 동시에 개인의 수행은 자율적인 戒에 의해 즉 그의 심리내부의 메커니즘으로 보면 자기 자신을 조율하는 自淨의 양심에 의해 뒷받침된다. 이와 같이 개인과 전체의 균형 유지가 곧 계율에 의해 가능한 것이고 이것이 곧 승가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所以이다. 또한 이 계율의 목적하는 바는 궁극적으로는 생사해탈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계율을 지킨다는 것은 결국 수행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다.

<四分律卷一>에 계율을 제정하여 지키게 하는데에 열가지 뜻이 있음을 설하고 있다(大正藏 第二十二卷 p.570下). 즉,

- 一. 攝取於僧-----승가에로 거두어지게 하고,
 - 二. 令僧歡喜-----승가를 기쁘게하고,
 - 三. 令僧安樂-----승가를 안락하게 하고,
 - 四. 令未信者信-----아직 믿지 않는 이를 믿게하고,
 - 五. 已信者令增長---이미 믿음이 있는 이를 믿음을
- } 승가 전체에 대한 지향임을 나타낸다.
- } 수행의 첫걸음은 믿음에서 출발한다.

- 六. 難調者令調順---길들이기 어려운 이를 잘 길들이게하고,
 七. 慙愧者得安樂---부끄러운 줄 알고 뉘우치는 이를 안락하게 하게하고,
 八. 斷現在有漏-----현재의 유무를 끊게하고,
 九. 斷未來有漏-----미래의 유무를 끊게하고,
 十. 正法得久住-----정법이 오래도록 머무르게 하려는 것이다. —정법은 苦海를 건너게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정법은 수행의 원동력이다. 이와 같이 정법의 久住가 戒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은 戒가 곧 修行德目이기 때문이다.
- 精進의 加速은 자신의 거친 마음을 조복하고 慙愧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 戒에 의한 정진의 가속은 苦를 유발시키는 有漏의 번뇌를 소멸시키고 覺을 성취케하는 수행 그 자체가 아닐 수 없다.

1.2.3은 승가 전체에 대한 지향임을 나타내고 있고, 4이하 9까지는 개인의 수행의 성취도를 나타내고 10은 수행의 원동력인 正法이 久住함은 戒에 있음을 나타낸다. 이상과 같이 부처님께서 戒를 제정한 동기의 十句義가 모두 苦의 해결을 위한 것이고 이는 곧 수행을 통해서만이 해결될 수 있는 것으로 戒律이야말로 궁극에 이르게하는 수행덕목임을 설하고 있다.

(4)

더 자세히 교육의 의미와 수행이 갖고 있는 의미를 대비시켜 보자. 세속에서 말하는 교육의 의미는,

“가르쳐 지능을 기르거나 지식, 교양, 품성 등을 바르게 갖게 하기 위하여 이끌어서 선량하게 하는 일”³⁾

로서 이는 불교에 있어서는 “諸惡莫作 衆善奉行”이라는 계율적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게 본다면 불교집안에 있어서의 교육이나 세속에서의 교육이나 그 의미에 있어서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불교집안에서의 교육의 최종 목표는 바로 成佛이다. 원효스님 말씀과 같이 장차 부처가 될 수 있는 것은

“네가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한 것은 戒를 가짐에 緣由하므로, 그 戒가 능히 成佛의 因이 되는 까닭이며, 그것은 因은 果를 정하기 때문에 부처가 될 수 있다”(梵網經菩薩戒本私記卷上)⁴⁾

고 말씀하신다. 또

“이로 말미암아 正覺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뱀이 비록 몸을 비틀어 기어가는 性質이 있지만 속이 빈 대나무관을 통과하게 되면 저절로 곧게 펴지듯이 중생도 이와같이 無始來로 부터 邪意를 익힘을 말미암아 不正性을 갖게 되나 만약 三聚戒의 관을 통과하면 스스로 正覺을 이룬다. 그러므로 이로 말미암아 正覺을 이룬다고 말한다.”⁵⁾

3) 국어대사전, 上, 삼성문화사, p.179

4) 汝是當作佛者 由持戒故 能有成佛之因故 因定果故 名當作佛 (韓國佛教全書 第一冊 p.590)

5) (上同) “由是成正覺者 蛇行性雖成曲 而若入於竹管者 自成正直 衆生亦如是 從無始來 由習 邪意故 成不正性 然若入於三聚戒管者 自成正覺 是故 言由是成正覺也” (韓國佛教全書 第一冊 p.589)

라고도 하셨다.

말하자면 初心者의 마음이 계율로 장엄될 때 그 계율의 마음이 因이 되어 果인 正覺을 성취하고 부처가 된다는 것이다. 위산스님도 바로 止持⁶⁾作犯⁷⁾으로 初心⁸⁾의 마음을 단속하여 계속 유지하는 데는 계율로 무장했을 때 가능하고 또 자신의 모든 잘못된 점을 고칠 수 있는 것이라고 설하고, 그에 의하여 곧 완전한 가르침인 了義上乘을 깨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⁹⁾

이와 같이 계율은 출가와 동시에 받아 지켜야하는 것이다. 아니 평생 승려로서의 삶을 영위하는 이상 계율을 생명으로 삼아야 수행자라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계율을 지킨다는 것은 모든 승려에게 해당하는 사항이므로 계율이 正覺성취의 목적이므로 그것은 바로 수행을 의미하는 이상 선원에서 정진하던 강당에서 經論을 공부하던 念佛, 布教, 종무행정 등 누구에게나 공통되는 수행의 규범이자 그 내용이 되지 않을 수 없다. 굳이 부연 설명하자면 戒는 곧 定을 유발시키고 정은 慧를 유발시키므로 곧 正覺의 성취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서산스님께서도 禪家龜鑑에서

“계율이거나 선정이거나 지혜이거나 그중 하나만 들어도 셋이 구족하여 있어 날날이 홀로 되어있는 것이 아니다.” (戒也定也慧也 舉一具三 不是單相)

라고 말씀하셨듯이 戒定慧 三學은 바로 수행체계이고 바로 廻光返照가 아닐 수 없다. 말하자면 戒 하나만을 지켜도 定과 慧가 같이 따르는 三學同轉이 되는데, 戒는 자신의 自性清淨心の 善心이므로 자신의 내부에 일어나는 갖가지 계율에 저촉되는 妄想心을 制御하는, 즉 逆流(廻光返照)시키는 힘이 戒다. 그렇게 한다면 정과 혜는 자연 바로 따라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비록 포교나 종무행정을 보더라도 戒를 지키고 있는 이상, 언제나 자기 내부로 廻光返照가 저절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수행이 아닐 수 없다. 그 반대로 수행을 잘하고 있으면 戒를 억지로 지키고자 하지 않아도 저절로 지켜지게 되는 것이다. 이와같은 입장에서 출가자는 모두 수행자이므로 따로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승가 본연의 수행 본질상 맞지 않는다. 물론 계율에는 교육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만 결국 계율이라는 것이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正覺을 목적으로 한다고 할 때, 그것은 수행이지 교육이라고 보기 힘들다. 그러므로 승가에 교육이라는 말은 아무래도 부자연스럽다.

물론 승가에 교육이 필요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교육은 타율적이고 피동적이다. 대조적으로 正覺성취를 위한 수행은 스스로 자신의 본질을 규명해야 하므로 자율적이고 능동적이다. 스스로 자기 자신의 힘으로 가야할 길을 가는 것이 수행이다. 물론 교육 안에서도 실천개념으로서 수행이 없지 않다. 다만 교사가 학생을 상대로 교육을 실제로 수행해 나가는 과정에서의 수행의 자율적 차원을 말한

6) 止을 의지하여 戒體를 保持하는 것을 止持라고 칭한다. 말하자면 止持의 止라는 것은 制止를 말한다. 즉 身・口를 제지하여 모든 惡을 짓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 이 止持戒는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惡을 짓지않게 하는데 그 효능이 있다. 또 律 가운데 比丘 比丘尼의 二部の 條目을 가리키거나 혹은 四分律 중에 비구의 二百五十戒 비구니의 三百四十八戒를 가리킨다. (佛光大辭典, 上, p. 204)

7) 作犯이란 殺生 偷盜등의 惡事을 지어서(作) 받은 바의 戒를 犯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止持作犯”에 대하여 殺盜等 惡法을 그치게(止)함이 戒를 가지는(止持) 것이 되고, 殺盜等 惡法을 짓는(作) 것이 戒를 犯하는(作犯) 것이 되지만 그와 반대로 慈悲等 善法을 그치게(止)함으로서 戒를 犯하는(止犯) 것이 되고 慈悲等 善法을 지으(作)므로써 戒를 가지는(作持) 것이 된다. (佛光大辭典 上, p.1475, p.2776)

8) 初發心の 略으로 처음 깨달음을 求하는 마음을 發하는 것을 말한다. <誠初心學人文>에는 초발심者로서 벗을 잘 선택하고 戒를 받아야 하고 또 이 계의 지킬때와 犯했을 때와 열 때와 막을 때의 因果를 잘 알아야 됨을 설한다. 이와 같이 했을 때 처음 깨닫고자 발심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다.

9) 止持作犯 束斂初心. 微細條章 革諸猥弊. 毘尼法席 曾未叨陪 了義上乘 豈能甄別? 可惜 一生空過 後悔難追 (위산 대원선사경책)

다. 말하자면 교사가 학생에게로 향하여 가르치는 실천적인 행위를 수행이라면 승가에서의 수행은 밖으로 향하여 직접 가르치는 수행의 의미까지 포함한 자신의 내부로 廻光返照하는 것을 진정한 수행이라고 본다. 이런 점에서 교육과 수행의 차이가 있다고 본다. 물론 자신의 사고력과 창의력 개발, 더 나아가서 내면적 각성까지 교육의 범주에 넣어서 말한다면 이러한 교육의 의미는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것이다.¹⁰⁾ 그럴 때에 교육은 교육이 수행의 자율적 능동적인 면과 거의 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볼수 있다.

그러나 교육에 의해서 과연 수행과 같이 언어적 제약과 모순성을 벗어나서 言語가 寂滅하는 수행의 첫걸음, 즉 言語道斷의 경지에까지 들어가게 할 수 있는가? 더 나아가 언어에 의하여 결정되는 思考도 言語寂滅에 의하여 부정되는 心行處滅과 같은 상태, 즉 이와 같은 내면적 각성이 이루어지게 하는가? 만일 교육이 수행의 이와 같은 면과 동일하다면 우리 승가에서는 이것을 교육이라고 하지 않고 수행이라해야 타당하다. 또 이와같은 수행의 방법에 있어서 八正道, 六波羅蜜 등의 수행은 모두 戒定慧 三學의 수행체계인데 이와 같은 수행체계가 교육이라는 말에도 함축되어 있는가라고 반문할 수 있다. 만일 비슷한 것이 있거나 동일하다면 굳이 승가에서 교육이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을 것이고, 없다면 교육이 지향하는 바와 승가의 수행이 지향하는 바가 다르므로 굳이 세속적 의미를 가지는 교육이라는 말을 쓸 필요가 있을까? 의문이다. 세속사회적 개념인 교육이라는 용어로 굳이 불교개혁을 하려고 해야하는가? 왜 불교적 총체개념인 수행이라는 용어로는 하지 못하는가 교육이라는 말이 승가에서는 잘 어울리지 않는다. 오히려 승가에서의 최종 목표인 깨달음을 향해 지어가는 일체의 행위는 그 본질에 있어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수행일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교육이라는 말을 下位개념으로 쓰고 수행을 보다 큰 개념으로 사용해야할 것이다. 세속의 교육논리나 교육체계를 가지고 승가 교육에 접목시켜서는 승가 본연의 수행체계에 어긋나고 만다.

만일 승가에 굳이 교육적 의미를 찾는다면 그 교육목적은 단지 길을 가리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말하자면 승가의 교육자는 길을 인도하는 길잡이로서 導師이고, 피교육자는 지시하는 길을 따라 스스로의 힘으로 걸어 가는 수행자이다. 이러한 의미에서의 교육이란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사람에게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일 뿐이고, 교육적 요소는 수행이라는 낱말 속에 포섭되어 용해된다. 말하자면 어느 누구도 출가하는 순간 그는 수행자고 구도자이다. 수행이란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보편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이다. 이러한 전제하에서 기초교육이니 기본교육이니 하는 것들이 논의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교육은 모두 수행하는 속에서 병렬적으로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지 수행과 교육을 나누어서 별개로 보아서는 안될 것이다. 수행이라는 대전제 하에서 기초나 기본이라는 것을 논해야하고 또 그 구분도 울장에 근거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강원을 규정할 때 기본교육기관이라기 보다는 기본수행을 하는 수행도량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5)

위에서 살펴본대로라면 의미에서 교육과 수행을 二元論적으로 나누어 보는 생각은 止揚할 필요가 있다. 수행은 비구 비구니의 二部衆에 있어서 합당한 것이고, 이십세이하의 사미 사미니는 당연히 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이미 論하였듯이 승가에서의 교육이라는 말은 오히려 수행이라고 바꾸어 말하는 편이 온당하다고 본다. 經에 의하면 “스승은 소년의 머리를 깎기에 앞서 소년에게 좌선 수행에 관한 법문과 함께 수행법을 자세히 일러주었다. 그러자 소년은 머리를 깎는 동안 스승으로

10) 진리의 “길로 들게 함” “길들임”인 것이요, “기르는” 것이요, 교육인 것이다. 이로써 불 적에 우리말 “가르치고 기름”의 본질적 의미가 한층 뚜렷하게 되는 것이니, “시비선악을 판단하여 거친 것을 다듬어 착하고 아름답게 하되 그 기본노선이 사람의 길(道)을 견도록 성장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李圭煥·金潤泰·金尙鎬 共著, 教育學概論, 培英社, p.14)

부터 배운 수행법을 집중적으로 실천하여, 머리가 다 깎이는 것과 동시에 아라한을 성취하였다”¹¹⁾는 이야기가 있다. 그러므로 20세를 훨씬 넘은 名字沙彌와 名字沙彌尼에게는 교육이라는 용어가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다. 그러므로

“교육은 수행과 전법과 교단 수호의 목적을 위한 준비 단계로서 불교사상과 수행자로서의 자질과 태도를 확립하기 위해 수학하는 과정이다. 기초, 기본 교육 과정을 마친 승려라야 비로소 수행이든 포교든 외호행정이든 할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그리고 개혁회의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그렇기에 강원, 승가대학은 교육기관이고 선원, 염불원 등은 수행기관이다. 그러나 종헌은 제85조에서 교육기관으로 총림, 선원, 율원, 강원, 승가학원, 염불원, 승가대학, 연수원, 행자학원 등을 들고 있어 혼돈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라고 하여 개혁회의에서 강원을 교육기관으로 규정하는 것에도 재고의 여지가 많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교육과 수행의 의미는 본질적 차이가 있다. 승가의 생사해탈을 향한 일체의 작위적 행위에는 교육보다는 수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그 본의에 맞다는 것은 살펴본 바와 같다. 그러므로 강원은 교육기관이라기 보다는 수행도량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당연히 강원학인은 수행자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원의 학인을 피교육자로 규정하면서 강원학인들이 수행자로 자칭하여 제도적인 틀안에서의 통제와 지도를 받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초점이 빗나간 논조가 아닌가 생각된다. 우선 그 주장을 살펴 보면

“선원, 염불원 등에서 수행하는 것을 교육받는 것으로 사고하여 대다수 스님들이 제도교육을 회피하려고 있다. 반대로 강원 등의 교육기관에서 교육받은 사람들은 스스로를 수행자라 생각하여 제도적인 틀안에서의 지도와 통제를 받지 않으려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다. 제도적인 틀에 의해서 지도와 통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아마 현 한국불교의 승려의 자질이 현실적으로 승려로서 기본자질도 이미 갖추어지지 않고 기본자질을 갖추려는 노력도 하지 않는 통제 불가능의 승려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의 근본일 것이다. 말하자면 外道와 같이 승려라는 신분을 직업화시켜 생활수단으로 삼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승려들이 최소한의 기초자질이라도 갖게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의 불교 현실에서는 강원제도가 그 기초자질 배양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현실적으로 승려들의 수준과 품성을 일정하게 항상 정형화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강원을 기본교육기관이라고 보는 입장에서 수행 이전의 기초자질을 갖추기 위하여 교육받는 사람들이 자칭 수행자라고 생각하고 제도적인 틀을 벗어나 승가의 가풍을 흐린다는 요지로 받아들여진다.

그렇다면 만일 제도적 틀에 의해서 강원 등에서 교육 받는 사람들은 수행자가 아니므로 당연히 그들을 통제하고 또 지도가 이루어진다면 승가는 수행자의 집단이라기 보다는 세속 사회의 여느 집단과 다를바 없는 차원으로 전락하고 만다. 왜냐하면 타율적 통제에 의해서만 질서가 유지되는 집단이라면 이미 수행자 집단이라기 보다는 세속의 어떤 단체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승가에서의 지도와 통제는 제도적 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엄연히 부처님 당시부터 내려오는 승가본연의 지도와 통제의 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계율이다. 그런데 어떻게 계율에 근거한 것도 아닌 새

11) 사회적 측면의 교육용어로 굳이 불교개혁을 하려고 해야하는가, 왜 불교의 총체적인 수행용어로는 하지 못하는가

로운 제도적 틀을 마련하여 지도와 통제를 가할 수 있다고 하겠는가? 만일 새로운 제도적 틀이 아니고 적어도 계율을 근거한 제도적 틀이라면 굳이 사회적 용어인 교육이라는 말을 빌려 올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승려로서 기초적 자질을 갖추고 있지 않는 승려를 교육시켜야 하고, 그래서 교육이라는 말이 승가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라면 그것은 아마 우리 승가인이 계율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는 것인지 아니면 계율자체에 근원적인 결함이 있어서 새로운 제도적 틀이 필요한 것인지 또는 계율이라는 근본적인 인식이 결여된데서 오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진정 승가의 지도와 통제, 교육과 수행의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려면 율장의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아무튼 계율을 지키는 이는 모두 수행자이어야 하는데 수행자라면 절대로 승려의 자질이 문제가 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행에 대하여 말하자면 수행이라는 본의에 대해서 참으로 歪曲, 縮小, 특수화 시키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바꾸어 말한다면 수행자는 의례껏 지도와 통제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禪院 律院 念佛院에서 수행하는 스님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인가. 참으로 그러하다면 이 말의 의도를 짚어볼때, 수행자는 특권을 부여받은 자라는 의미가 있다. 지도와 통제를 받지 않고 막식막행해도 괜찮다는 의미가 아닌가. 진정한 수행자라면 마음을 더욱 다잡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無所有의 정신을 가진 자로서 持戒 정신을 가진 승려의 자질에 즉 인격에 결함이 없는 지극히 겸손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고 수행자는 남 위에 올라서는 특권과 멋대로해도 관계없다는 생각을 가진다면 진정한 수행자라고 하겠는가? 진정한 수행자라면 스승의 지도와 律의 통제를 왜 받지 않겠는가? 지도와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의미는 반승가적인 사람이라는 의미이고 종단의 모든 수행자는 승가가 아니라는 소리가 아닌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오히려 제도 교육의 필요성을 통감할 대상은 단지 수행을 회피하고 방일한 자에게 해당되는 것이지 엉뚱하게 착실히 수행하는 승려에게 뒤집어 씌워서는 안될 것이다.

그리고 지도와 통제는 무엇을 근거하는가? 승가에는 계율이 있어서 통제가 가능하고 또 그것을 근거하여 지도가 가능한 것이다. 계율이란 승가인 모두에게 해당하는 것이지 어느 특정인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 결코 아니지 않는가. 이와 같이 강원의 확인은 수행자가 되어서는 안되는 이유가 따로 있을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이유는 講院의 기능을 살펴보다도 명백하다.

(6)

강원에서는 履歷過程의 教科科目에 따라 經論이나 語錄을 강습받는 것 외에 禮佛, 供養, 懺悔 등과 日常習儀를 통해 승가생활에서 익힐 것은 익히고 배워야 할 것은 배우는 場으로 볼 수 있다. 그렇게 보면 외형상으로는 분명 교육기관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내용에 있어서 예불, 공양, 참회 등과 일상 습의는 염연히 수행이므로 수행도량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하여 章을 달리하여 자세히 논할려고 한다. 특히 강원이라는 곳을 경론이나 어록을 강의하는 교육자와 강의를 받는 피교육자의 관계로만 보거나 피교육자의 부족한 知識을 涵養하기 위하여 글을 배우는 곳으로 일방적으로 단정하면 영락없이 講院은 교학을 연구하는 곳, 즉 학문하는 교육기관이라고 규정할 수도 있으나 이것은 성급하고 위험한 논리이다.

이는 혹 교육이라는 단어에 학문이라는 개념을 접목시켜서 강원은 당연히 교육기관이라고 하는 것 인지는 모르지만 교육이란 피교육자를 위한 타율적인 것이므로 자신이 풀어야 할 생사문제까지 대신해서 해결해 줄 수 없다. 말하자면 자기 자신의 문제는 자율적인 수행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것이다. 수행을 代身하여 대신 깨달아 줄 수는 없는 것이다. 교육이라는 타율적인 방법으로는 자기 자신의 본질적인 생사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佛敎란 깨달음(佛)의 가르침(敎)이다. 깨달음이란 어디까지나 自內證의 消息이다. 즉 스스로의 깨달음의 체계이다. 인간은 누구나 깨칠 수 있는 佛性을 가지고 있는 평등한 존재이다. 그 깨침의 내용인

法(다르마)은 如來의 出世와 不出世와 상관 없이 常住하는¹²⁾ 보편적인 진리이므로 教主가 없는 것이 특징이고 교주가 없으므로 教理라는 도그마가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楞伽經에서 부처님께서서는 四十九年間 법문을 즐기치게 설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일찌기 한마디도 說한 적이 없다¹³⁾고 말씀하신 것이다. 이와 같이 經論이나 語錄은 단지 自內證의 소식과 본래 常住하는 진리를 가르키는 손가락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講堂에서 언어문자를 배우고 언어문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탐구하여 지식을 쌓아 학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이는 본질적으로 佛敎와는 거리가 멀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함허스님께서서는 “부처님께서 설하신 바의 법은 단지 道에 들어가는 방편일 뿐이다.”¹⁴⁾는 것이다. 그런데 이 문자의 방편을 “응당 버려야 할 것이지 굳게 지켜서 버리지 않으면 道에 들어 갈 수 없다”¹⁵⁾고 설하신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說法의 문자는 法을 지시하는 것이고 그 지시 된 法은 因의 힘을 가지고 있어 깨침의 果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함허스님은 또 설하시기를

“설법의 문자가 깨친 覺者의 眞에 의지하므로 문자가 곧 解脫이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三百餘會나 법회를 열어 법문을 하셨지만 일찍이 한 字도 설하신 적이 없다”¹⁶⁾

고 한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는 설법의 문자를 看經하고 論講하는 순간 순간이 해탈을 가져오는 것이므로 강당의 간경이나 논강하는 그 자체가 바로 수행이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강당에서의 看經은 수행이고 강원은 수행도량이 아닐 수 없다. 이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項目을 달리하여 자세히 논하고자한다.

12) 若如來出世 若不出世 法界常住 (楞伽經會譯 卷三之上 p. 十四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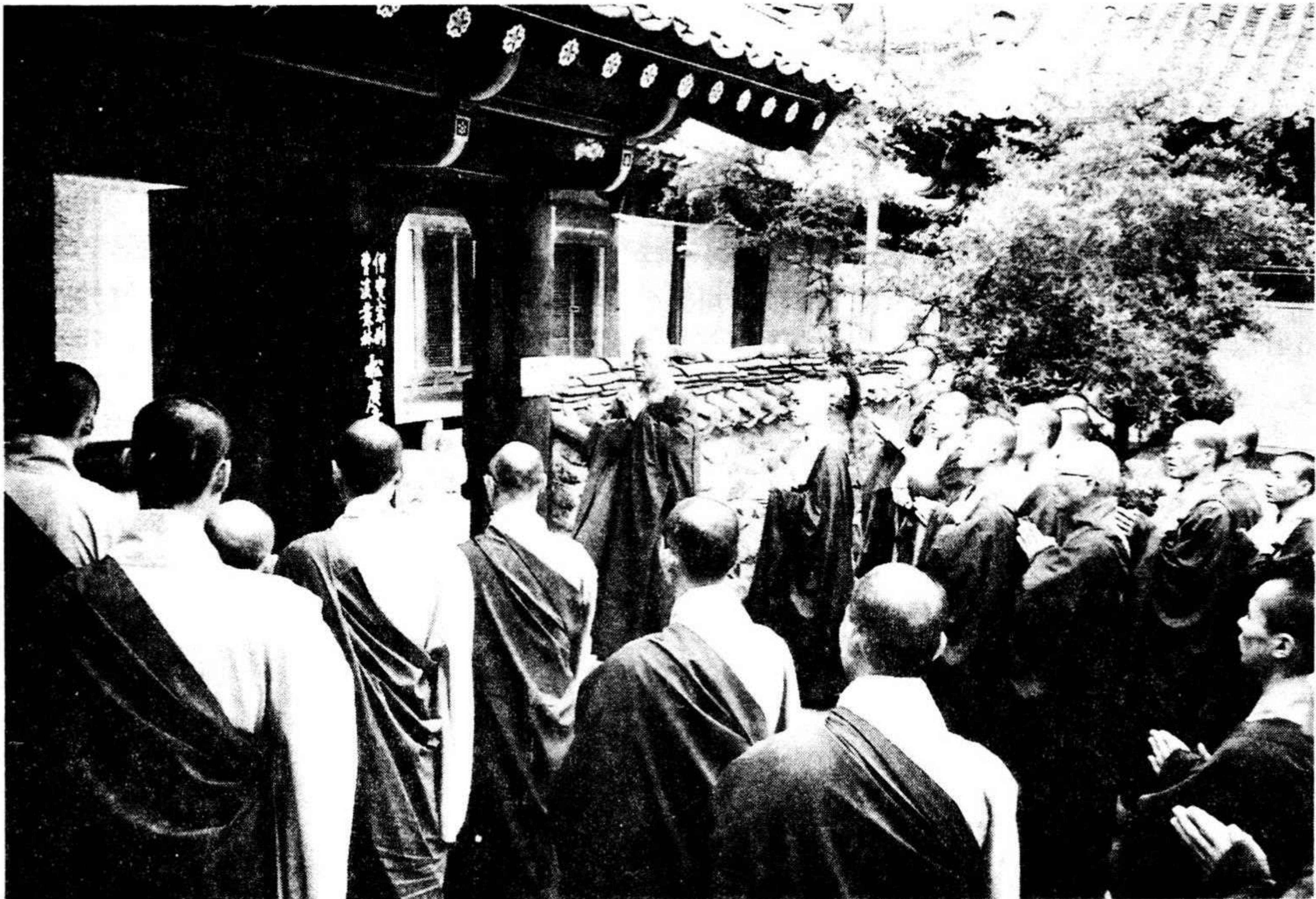
13) 如世尊所說 我從某夜得最正覺 乃至某夜入般涅槃 於其中間 乃至不說一字 亦不已說當說 不說是佛說 (楞伽經會譯卷三之上 p. 十三上)

14) 佛所說法 只是入道方便 (金剛經五家解上 說誼 p. 六十三下, 木版本)

15) 依方便而入道則可 守方便而不捨則不可 方便尙應捨離 此離亦何所存 (上同)

16) 卽眞故 文字卽解脫 三百餘會 未曾說一字 (金剛經五家解上 說誼 p. 六十四上)

松廣寺佛教專門講院 현판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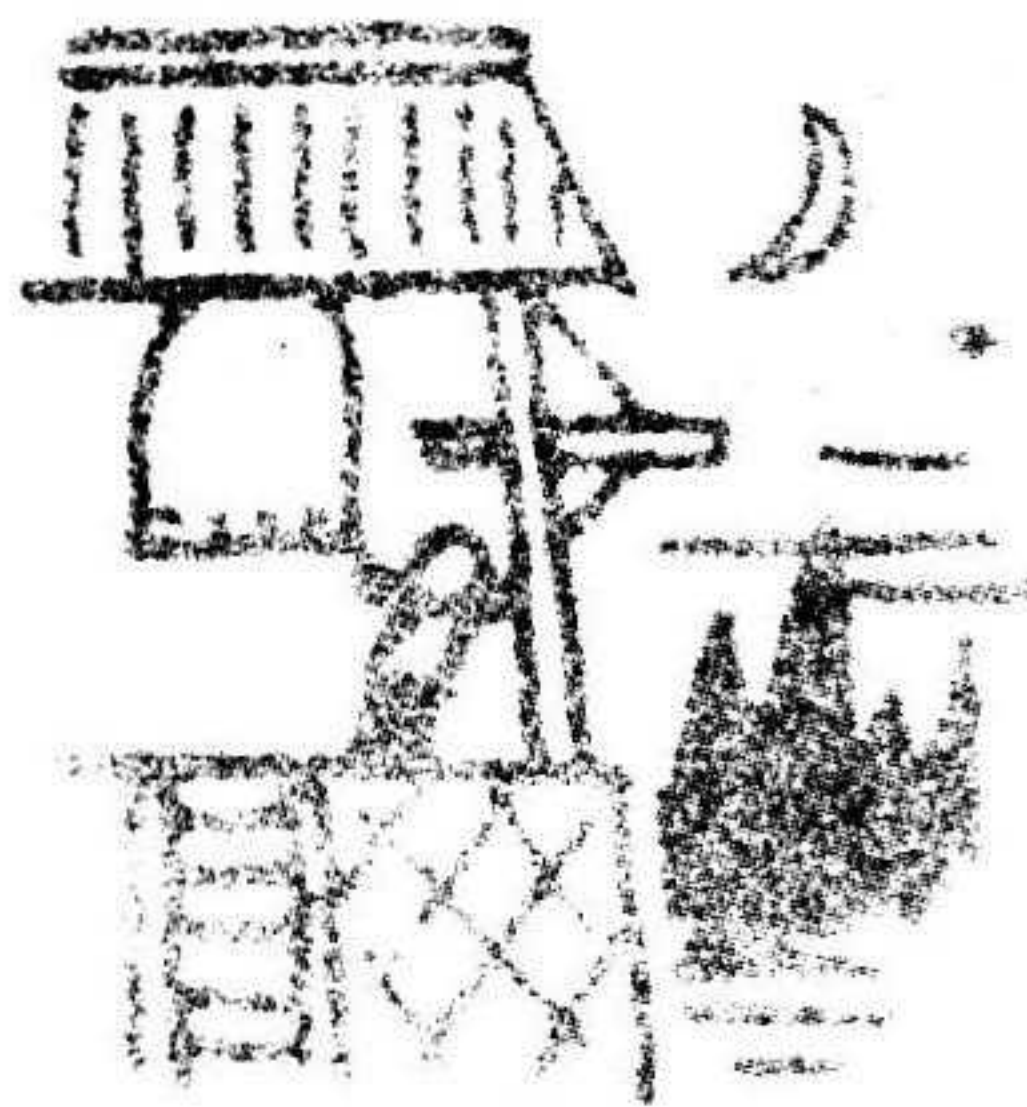
6월 17일에, 현판을 직접 써주신 울주(보성)스님과 주지(현고)스님, 강주(지운)스님을 비롯 강원 대중 일동이 참가한 가운데 『松廣寺 佛教 專門講院』 현판식이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이후 지나간 암흑기를 지나며 자리잡았던 열등의식과 학력을 중시하는 세속풍조에 기울어 강원을 학문하는 곳으로 오인한데서 등장했던 승가대학이란 간판을 내렸습니다.

이제 천육백년 세월동안 이땅에 뿌리박고 민족문화를 꽃피워 온 한국불교의 전통을 이어 다가오는 21세기를 밝히고 이끌어갈 구도자가 수행하는 불교전문강원으로 다시 태어나고자 합니다.

4월 30일과 5월 8일

회일(사집반)



1

4월의 마지막 날이다. 이렇게 써놓고 보니 나의 心理 상태가 참 우습다. 分別心을 내지 말아야함을 배우고 체득했음에도 이렇게 시간 개념을 分別하고 또 달로, 날로, 시로 나누어서 생활이라는 미명아래 分別심만을 키워나가고 있으니 우습다.

내일부터는 다짐한대로 실행에 옮기는 날이다. 아직까지 공부할 것들도 확정짓지 못한 상태인데 내일 중으로는 모든 계획과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확정하고 시행에 옮겨야겠다. 물론 기본적인 틀을 유지하면서 나름대로의 변화를 주는 방안이 필요하겠다.

이번에는 잘해보자. 노력하고 기원해보자.

또 내일은 '해청당 2호' 제작의 첫날이 될 것 같다. 진용을 새롭게하고 제작 계획을 잡고 원고 모집 계획도 세워서 제작일정을 계획해 나가도록 해야겠다. 아무래도 올 겨울호나 내년 봄호까지도 관여 해야하므로, 이왕 하는 김에 잘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겠다. 어제처럼 각자 시안들을 검토 수렴하여 더 구체적이고 체계성있는 원고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겠다. 첫호의 이미지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면 더욱 원고 모집이 쉬울터이며, 그렇지 않았다면 조금더 어려움이 있으리라. 이번 호에는 '주제'가 수행자의 입장에서 보고 쓰고 느낀 것을 싣도록 해야겠다. 새 식구들도 많이 늘어 원고는 충분히 모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문제는 우리 편집 담당 스님들이 열심히 하는 것만 남았다는 것이다.

소쩍새가 지독하게 운다. 산을 온통 울리고 만다.

입산한지 꼭 1년이되는 날이다. 불현듯 지난해 이맘때의 방황이 떠오른다. '만약'이란 말은 現實에선 통용되지 않지만 만약 世間에 그대로 있었다면 내 몸과 마음은 어디엔가 '탈'이 나도 크게 낫으리라 생각한다.

깊은 시름에 싸여 있다가 홀연히 떠나와서 이렇게 사는 인연이 되었으니 참으로 뜻깊은 날이 아닐 수 없다. 생전의 효봉 스님은 당신 출가일에는 새옷을 갈아 입으셨다는데 난 아직 해놓은 일이 없어서 조용히 근신하는 하루가 되어야겠다.

'밖에서의 삶'을 살아보겠다고 나름대로의 발버둥은 치열한 것이었지만 그 치열함은 또 떠남을 전제하고 있었기에 일정 방향성을 갖고서 즐기차게 계속되었던 것일까?

지금 생각하면 '결국'이란 말로 귀결되어질 것인데 그다지도 험악하고 먼길을 돌아서 몇번씩이나 다시 제자리로 회귀하였다가 이곳에 이르는 이르렀다.

지난해의 그 열뜰 얼굴이면서도 그 각오를 오늘 다시 살려서 살아보자.

나 떠난 날

여기서 보면 나 온 날
 저기서 보면 나 떠나간 날
 서럽게 저녁비 내렸는데
 이제는 소쩍새 울며
 바람만 맑다.
 이길로 저길로 다시 길 바뀌
 어둠내리고 날밝도록
 '나' 찾았건만 '나' 여태
 찾질 못하고 나는,
 기원하옵나니
 바람불어지이다
 지혜 성불 바람 불어지이다
 아으, 이 밤



송광사 불교 전문강원 대증명단 (2538년 하안거)

강 주 : 지운
 학 감 : 보성
 강 사 : 지수 일귀 원순
 중 강 : 지우 보성 선일
 입 승 : 효원
 찰 중 : 하일

사교 상
 정률 효원 고경
 사교 하
 승국 천호 일수 진경 하일 계성
 사집 상
 보적 석우 노휴 연해 연등

사집 하
 선용 원당 회일 보행 보원 도안 혜관
 치문
 랑림 무량 종지 덕명 도제 송원 도선
 도환 한운 도성 도산 도은 본연



題枕溪樓

牧隱 李穡

譯:玄鋒스님<廣遠庵>

披雲一上枕溪樓
便欲人間萬事休
半日登臨即歸去
明朝上馬重回頭

구름을 헤치고서 침계루에 올랐더니
인간세상 모든 일을 그만두고 싶어지네
한나절을 올라쉬다 이제 바로 돌아가니
내일 아침 말을 타고 거둡거둡 돌아보리

又

洞府深深隔世塵
山僧無事解談眞
他年福地尋何處
白石清溪入夢頻

산골가람 깊고깊어 세상번뇌 멀어졌고
스님네는 한가롭게 진리말씀 나누시네
이 다음에 신선세계 어디에서 찾을건가
하얀돌의 맑은 시내 꿈에 자주 비치겠지

침계루는

사자루라고도 하며 사증의 각종법회, 여름수련회, 보조사상연구원 회의장 등으로 쓰이고 있다.